朝鮮日報
夕刊
二十三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中國側의主權論으로 交涉、完全히停頓

須磨總領事歸國報告에따라 日中交涉의重大岐路決定

【東京電話同盟】須磨總領事가 携來할 駐中陸海外三當局의 綜合的意向을 기다리고잇는 外務當局의 態度는 同總領事의 報告에 依하야 決定할터인데 日本의主張에 對하야 中國側이 依然不誠意하게 當할時에는 交涉決裂도不得已하다고 極히 强硬하다 即日本政府의 對中交涉方針은 최근 事件의 發生을 轉機로 하게 하기爲하야 그根源이되은 排日을 根絶식혀 紛爭의 禍根이되는 原因을 解決하려하는것인바 其重要案件인 北中明朗化, 防共의 二大重點에 中國側이 形式的主權論을 방패로 全然 協力하기를 表示치안키때문에 交涉은 完全停頓되여잇다 南京交涉의 失敗與否는 아직 檢討를要할것이나 日本側으로서는 殺害事件의 解決을 爲始하야 排日取締 懸案處理 北中防共問題는 不可分的關係가잇다는 旣定方針을 堅持하고 交涉決裂을 避하기爲하야 此際解決할수잇는것만을 成立시킨다는 姑息的手段은 이를 斷乎排擊하고 一切를 放棄하드라도 不得已하다는 重大決意를 行할時期라한다 따라 日本側으로서는 須磨領事의 報告를 基礎로 最後의 方針을 樹立하기前이라도 아직 一二回 川越張群會談을 繼續케하리라고 觀測되나 萬一 日本政府가 決裂할수밧게업다고 決定하드라도 그때에는 再次川越大使로하여금 蔣介石氏와 會見케하고 注意를喚起한後에 交涉을中止하리라고觀測되는바 一週間後는日中交涉決裂의與否를 左右할重大岐路이라하야 其推移는 注視되여잇다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의 最後的訓令을 仰하기爲하야 急遽歸朝途上에 오른 須磨南京總領事는 二十四日午後三時二十五分 東京驛着富士號로 入東할터인데 有田外相은 同總領事의 到着을기다려 即時日中交涉의 經過及現地側의 交涉態度等을 聽取하고 다시 二十五日은 日曜日에도不拘하고 堀內次官、桑島東亞局長、上村第一課長等 關係首腦部의 參集을 求하야 今後交涉의 運命을 決定할重要協議를 逐할方針이다 그리고 同總領事는 다시三、四日滯東하면서 外務當局을 爲始하야 陸海軍兩當局과도 充分協議를 逐한後 有田外相의 重要訓令을携行하고 二十八、九日頃東京發急遽 歸任할豫定인데 同總領事의歸國으로 再檢討될 日本의交涉方針內容은 日中交涉의將來도 決定할 重要性을 갓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對西不干涉委員會 廿三日부터開會

獨蘇間의葛藤再燃乎

【倫敦二十二日發同盟】西班牙內亂不干涉條約委員會는 蘇聯代表의 爆彈提議提出以來 休會를繼續하고잇든바 二十三日 마침내 開會키로 決定하고 二十一日電話로 各國代表에게 非公式으로 通告하엿는데 二十二日은 다시 公式召集이 通告되엿다 二十三日會議의 議題는 左와如하다

一、西班牙代表의非禮에對한 獨逸政府의回答
二、獨逸代表가提出한 蘇聯邦의 軍需品을 西班牙에 輸出한것을 非難한文書의檢討
三、蘇聯代表의 回答審議는 來週에開始할豫定
四、議長프리마드卿이 委員會의 成果에 對하야 詳細報告한 通牒을 提議함

第一의 獨逸의回答은 蘇聯代表가 獨逸製發動機三五臺를 裝備한飛行機의 機體의하겐크로이츠를 消滅하기爲하야 西班牙兵이 펜기를 칠하는 寫眞을添附하야 獨逸의 武器供與를 攻擊한데 答한것으로 該談은 明白히 獨逸의定期空路用飛行機이나 西班牙가 此를 抑留하고 外交問題를 이르키려는것이라하야 其證據로 「西班牙政府는 獨逸의 飛行機를 抑留하기로 決定하고 即時 勞動者로하여금 하겐크로이츠를 拔消식히도록 命한것이다」라고 記載한 西班牙紙의 拔取를添付한것이다 그리고 獨逸代表는 第二의文書에잇서 蘇聯政府가 西班牙에 對하야 軍需品을供給하엿다하야 「크반」號가 소물吸 今一般의 蘇聯船이 바르셀로나市에서 軍需品을 下陸하엿다고 明言하야 逆으로 蘇聯을 攻擊하는態度를 取하엿기때문에 此等文書를 討議하기 爲한 二十三日委員會는 再次 獨蘇兩國間에 새로운 葛藤을 惹起하리라고 豫想된다

獨代表說明直後

蘇聯代表脫退斷行乎

【倫敦二十二日發同盟】西班牙不干涉委員會는 二十三日 午後四時 英國外務省에서 開會하고 獨逸政府의 覺書를 檢討할터인데 右覺書의 審議를中心으로 獨逸代表 비스맑公과 蘇聯代表 마이스키大使와의間에 激烈한 論爭이展開되리라고 觀測되다 消息通의 情報에依하면 蘇聯政府는 이미 不干涉協約脫退決意를 鞏固히하고잇는데 獨逸代表의 說明을終了하는대로 蘇聯代表는 敢然히 協約破棄를 宣言하지안흘가 觀測되다 但英佛兩國政府가 國際政局의 重大性을 力說하고 蘇聯代表의 說得에 努力하고 잇슴으로 不干涉協約의 放棄는 一時遷延될는지도 알수업다

英國叛軍政府와 關係樹立策謀

【倫敦廿二日發同盟】叛軍의猛攻擊으로 마드리드府는 바야흐로陷落危機에 瀕하게되엿는데 英國代理大使 밀론氏는 身邊의 危險이 極度로 急迫되지안는限 어데까지 任地에 머물러 新政權과의間에 事實上 關係를 樹立하리라고 觀測되다 一方바르셀로나駐剳 英國總領事 빗헤氏도 任地에서 自國의 權益確保에 努力하고 잇는데 英國政府로서는 西班牙 現政府가 바르셀로나市에 遷都하야 所謂 카탈로니아共和國을 樹立하드라도 同政權을 承認할意思는 업는模樣이다

話題·解說

冀東政府와 冀察政務委員會

目下 進行中에잇는 日中交涉의重點의하나는 北中特殊化問題다 그런데 이 北中을 特殊化하는 楔子乃至 그中心的役割을 하고잇는것은 冀東冀察兩政權이다 滿洲事變後 日本軍의 熱河攻擊에 뒤이여 長城戰이 急迫할때 南京政府에서는 北平政務委員會를 組織하고 昭和九年五月三十一日塘沽停戰協定을 締結하얏다 이結果로 河北省東部二十二縣은 正常非武裝地帶로 編入되얏는데 이非武裝地帶의行政督察專員 殷汝耕氏는 昨年十月 香河縣에서農民自治運動이 突發하자 이것을 契機로하야 一、國民政府의否認 二、赤化防止 三、親日提携의三項을 內容으로하는自治宣言을 發表하얏스니 이것이 곳 冀東政權成立의發端이다 그런데 十一月十一日에는 當時 平津衛戍司令이든 宋哲元氏가 또한 國民政府와의關係中에잇는 國民黨第五次大會에 對하야 政權解消의 通電으로써 自治運動을始作하얏고 다시그달 二十日에는 蕭振瀛氏가 入平하야 北中三省自治宣言을 發表하자 南京政府에서는 北中에 何應欽氏를보내여 宋一派의 自治運動은 挫折식혓는데 殷汝耕氏는 그달二十五日 冀東防共自治委員會를 組織하고 財政獨立을 宣言하얏다 十二月二十五日에는 드듸여 同委員會를 冀東自治政府로 改稱하고 同時에 南京政府를 完全히 離脫하야 正確히 非武裝區를 領土로하는 새政權이 成立된것이다 이와가티冀東政權이 成立되는데 刺戟되야 宋哲元一派는 中央과어울어롤하야 昨年十二月 十一日에 冀察政務委員會를 組織하얏는데 冀東政權이 中央에서 分離하야 日滿과 密接한關係를 가지고자하는데 反하야 冀察政權은 自體를 主張하면서도 中央에서 分離하려고 하지안는다 日間 새로 日本과 防共協定이 成立되얏다고 傳하는데 그 眞否는 알수업다하드래도 冀察政權은 日本과南京政府를 저울에 걸어노코 그輕重을 따저보는것이 事實이며 여기에 對하야 冀東政權은 中央을否認하고 日滿과積極的으로 握手하야 나가는것이 또한 事實인데 이두政權이 한결가티 關東軍의 支持乃至援助를 밧고잇는것은 지금새삼스러히 말할必要조차업다 (李東寶)

蔣氏、飛機로西安着

各省將領에게重要訓令

張學良氏와陝西、甘肅、寧夏의各省將領招致

抗日戰線强化策指示

【南京二十二日發同盟】蔣介石氏는 二十二日午後零時半 錢大鈞氏以下 多數를거나리고 飛行機로 西安에向하엿다

【上海二十三日發同盟】當地中國側入電에依하면 二十二日午後零時半 南京을出發한 蔣介石氏는 侍從室主任錢大鈞氏以下 十數名을거나리고 二十二日午後五時西安에到着하야 西北剿匪副司令張學良氏 陝西省政府主席 邵力子氏 西安綏靖主任楊虎城氏等의 歡迎裏에 宿舍에入하엿다

【南京二十二日發同盟】蔣介石氏가 今日正午 錢大鈞氏等과함께 飛行機로 西安에急行하리라는入電이잇서 冀察政權에 衝動을與하엿다 蔣介石氏는杭州會議에서 韓復榘 徐永昌氏等 北中五省代表를 招致하고 北中對策을 協議하엿는데 西安에서는 張學良氏를 爲始하야 陝西 甘肅 寧夏 各省에 在한 將領을 招致하고 杭州會議에 關聯하야

一、抗日戰線의强化
一、冀察政權包圍工作完成에對하야 重要指令을 與할模樣이다

(寫眞은 蔣介石氏)

叛軍『나』要衝을占據

西首都風前燈火

아大統領바르셀로나市에遷都準備工作開始

人民戰線 카州根據로對抗乎

【巴里廿二日發同盟】마드리드府의咽喉나바르갈네로市가陷落되는同時에 首都마드리드府의落城은時間의問題가될에니르럿는데 西班牙政府는 마드리드死守의困難함을豫見하고 바르셀로나港에遷都키를決定하고 아자니아大統領은 벌서同地에서 準備工作을着手하엿다한다 巴里駐剳日本大使館에 드러온情報에依하면 人民戰線의 黑幕으로 事實上西班牙政府의要職을 쥐고잇는 蘇聯大使도전베를氏는 當初首都移轉에頑强히反對하엿스나 情勢漸次不利하게되엿에 따라 마드리드放棄에 贊成하엿다하며 今後蘇聯은 商工業의 中心地가될 카탈로니아方面을 據點的으로 援助하고 此를赤化하야 根據地를確保할方針인듯하다

【마드리드廿二日發同盟】산·마르틴及산타크루스兩根據地에서進發한 아세지오·델가드兩將軍麾下叛軍 中央部隊는 空軍援助下에 二十一日午後活動하야 首都마드리드西南十九粁의 나바르갈네로市에對하야 總攻擊을開始한바 六個要塞에 據하야 頑强히抵抗을試하는 政府軍義勇隊와 夜晝激戰하야前後十時間에亘하야 激戰하고 二十二日未明드듸여 政府軍의 堅壘를突破하고 나바르갈네로市를完全히占據하엿다 同所는 마드리드府에至하는 最後의 要衝으로 이것는叛軍은 과다라마河畔건너 平坦한高原地帶를 懸河의 勢로首都城下에 突進케되여 首都의運命은旦夕에 迫到하엿다

叛軍飛行機 外國領事館爆擊

【빌바오二十一日發同盟】빌바오來電에 依하면 叛軍飛行機數臺는 二十一日午前 빌바오上空에 出現하야 外國領事館區域에 爆彈五個를 投下하야 祕露人一名 領事館警察員一名을 即死케하엿다한다

中央分離를抑制코 日中交涉을牽制

西安要人會議의開催

【北平二十三日發同盟】西安着電에依하면 蔣介石氏는 二十三日 甘肅省政府主席于學忠氏及寧夏省政府主席馬鴻逵氏의 到着을기다려 張學良、楊虎城、邵力子氏等과 重要會議를開催할터이다 會議의 重要題目은

一、黃河及隴海線을 最終線으로한對日國防線의 强化
一、北上한 中央軍의 指揮統率問題
一、綏遠方面의 危急에 瀕한境遇의 寧夏省의 防備問題

等으로 以上을總括하야北中政權의 中央分離를 抑制하고 綏遠의防備를굿게하는同時에 一方南京에在한 日中交涉에 對한示威的牽制를하려는것이다

潛水艦使用制限 來月倫敦에서調印

【倫敦二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는倫敦海軍會議當時의 諒解에基하야 倫敦條約第四編潛水艦使用制限條項의 存續에關하야 日米佛伊各國政府와 交涉중이든바 다잇섯는데 各國政府가 다支持의意思를表示하얏슴으로 十一月의第一週倫敦에서 潛水艦使用制限에關한協約書에 調印할것을 各國政府에 提言할모양인데 各國政府가 다右調印에 異議업는모양임으로 同條項은 特別規約으로存續을確認케될것이다 그러나佛國政府에서는 同條項의 存續에關聯하야 意見을내고잇는데 右書翰에對하야 關係各國의 回答을必要로하지안토록 考慮하고잇슴으로 日本政府에서도 協約書에對하야 樞密院의 御諮詢을必要로하지안코 主張은 全面的으로 貫徹될것이다

蘇援助船發見時 即時擊沈하라!

叛軍、各國政府에通達

蘇聯의西人民戰線援助企圖로

【살라만카二十二日發同盟】西班牙人民戰線의 崩潰危機를압두고 蘇聯政府는 一切의手段을다하야 援助를 企圖하고잇는데 西班牙叛軍은 二十二日 所屬軍艦에對하야 蘇聯船舶이 軍需品을 政府軍에 輸送함을發見하는時는대로 擊沈하라고 命令하엿다고傳한다 아직確報는업스나 叛軍은 同時에 各國政府에對하야 右決定을 通告할 方針이라한다

獨外相과會見繼續 차노伊外相

【伯林二十二日發同盟】伯林訪問中의 伊太利外相차노伯은 二十二日午前十一時 獨逸外務省에 노이라트外相을 訪問하고 昨日에繼續하야 一時間餘에會見하고兩相은 對蘇問題 新로카르노條約問題에 對하야 重要한 意見을交換한 模樣이다 다음에 차노伯은 괴링首相官邸의 午餐에 出席하야 同首相의案內로 空軍省을 訪問할 豫定인데 夜間에는 伊太利大使館에 獨逸首腦者名士를 招致하고 大晩餐會를 開催할터이다

機構의取扱方法決定

首相、方針闡明乎

政局의不必要한不安念慮코

【東京電話同盟】政府는 過般陸海軍兩大臣으로부터 提案된行政機構改革問題取扱에 關하야 자못愼重한 態度를 取하고잇는데 廣田首相의意思는 그取扱方法決定을함부로 遷延함은 [illegible] 여러가지誤解를 生하고 또內閣의運命도 云云하게되야 政局에 不必要한 不安을 與할것을 念慮하고 近日特定한閣僚와協議한後 具體的取扱方法을決定하고 同時 政府의行政機構改革에對한 方針을 天下에闡明할意向을가지고잇는모양이다

八面鋒

漢江人道橋 初渡式 今日盛大히 擧行。이로써 京城의大關門。비로소 具備。

◇

이리하면 漢江에 鐵橋、人道橋、廣壯橋、將次 永登浦로 直通할 鐵橋 合하야 京城近郊에만 四個橋。

◇

交通은 產業、軍事、治安上 重要한것。中央線、東海線、滿浦線을 急히 함도 京釜、京義의兩線으론 有事之時의 對滿行動이 不足한때문。

◇

鴨綠江、豆滿江에 十一個의 鐵橋를 架設한도、이때문。

◇

交通이애기가 낫스니 말이지 大京城의 道路網은 計畫은 햇스나 實現이 問題라고。

◇

가난한 살림이 집만 커도 걱정。

◇

明日의 音樂공부을 압두고 젊은 音樂家들 가슴은 焦燥。

◇

가을은 美術의 秋、音樂의 秋。모히라、오라 本社大講堂으로。

◇

朝鮮서 百萬圓以上의 金鑛이 다시 十一個所 增加한다고。

◇

그더에 朝鮮에 돈이나 흔해질라나?

人事·集會

◆洪淳寧氏 淸州邑內一徒里에서 二十二日還外銀

本社參觀(廿二日)

◆新高山公普校生徒七十五名 金蓍鎬氏引率下本社見學

滿鐵資金徵募等

陸軍當局積極協力

【東京電話同盟】滿鐵에 對한 政府未拂込株金의 拂込問題及 根本的事業計畫樹立遂行에 政府財界方面에 諒解協力을 求하기爲하야 渡東途中에잇는 松岡滿鐵總裁는 約十日間 東京에 滯在하야서 [illegible]方面을 [illegible]當局이인데 [illegible]當局에서는 [illegible]의事業計畫을 [illegible] 細한것은唯[illegible]의 [illegible]가아니라 日本의對[illegible]과 大陸政策에 重大障害가 될것임으로 [illegible] 重要하고 [illegible]인 寺內陸相도 松岡[illegible] 會見하면 即時 이點에 [illegible] 詳細한說明과 報告를 求하야 境遇에依해서는 大藏當局에 政府未拂込株金의 拂込其他의 事項에 對하야 說明을求하야 對滿國策遂行上可能限度의努力할 意向이다 그러나 陸軍當局으로서도 滿洲의經濟建設 產業開發의 大業은 이미五個年을 經過하야 바야흐로 重大轉換期에 直面하여잇고 北中經濟提携와한가지 더욱恒久的計畫의 具體的 프로그람을 樹立하야 大局的見地에서 이를遂行케할것이라는 見解를 堅持하고잇다 따라松岡總裁에 對하야第四次鐵道敷設計畫 關係官廳의事業擴張 北中經濟提携의 具體的內容에對하야 說明을 求하게될模樣인데 松岡總裁로도 今後의 滿鐵事業計畫內容을 說明함이 財界方面의 諒解協力을얻는데 반드시 必要함으로 陸軍 大藏關係當局을 爲始하야 財界各方面에 計畫內容을 詳細說明하고 資金徵募運營에 專然 善處할터로 同總裁의 活動은 크게注目된다

루마니아國王

체코首腦部와會談

【프라그二十二日發同盟】루마니아國王카롤二世는 近近프라그府를訪問하고 체코슬로바키아政府首腦와會談을遂行할터인데 右會談에잇서서는 戰爭勃發及動員이必要한境遇에잇서서 小協商國間의 共同作戰을協議할것이라고傳한다

ナイト印 ワイシャツ カラー
各種商品 (カタログ進呈) 大阪市南區久太郎町 心齋橋筋角 舘柳田シヤツ製造所 振替大阪九一六三番

中古格安品
ディーゼル機關 木炭瓦斯發動機 スチームエンヂン 水管式ボイラー 汽力發電用機械 重油發電用機械 鑛山土木用機械
各種在庫豊富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丁目 杉村機械商會

の大王 特製 店舖 式機 集呈
大阪市西區南堀江通三 寶屋農具製作所 振替大阪二四八五二番

食料玩具 小物玩具 卸問屋 大阪市東區清水谷西之町 筑紫屋商店 安價確實 商報進呈 振替大阪七六二五九番

既製洋服 オーバー ズボン 學生服 作業服 各種 呈見本 カタログは洋服業者 大阪市東局私書函九五號 二葉屋商店 大阪南農人町壹

製菓饅頭燒器 機械數十種アリ カタログ呈 今西製作所 大阪市玉造中道町 電話天王寺四四六一番

製造卸 カタログ呈 萬年筆と金ペン 製造卸問屋 大阪港局前 大萬社工場

蓄音器 レコード各社 ライブライター 印蓄針 大阪市東區谷町西之町 小林蓄音器製作所 電話東九五六 振替大阪三七七九九

優勝旗 校·會旗 青年團旗 附屬品一式 靑年學校旗 正式國旗 玉房竹附屬品 專門問屋 大阪東區本町 堺筋東入 上田旗店

옷감 韓靑商會 京城桂洞町 電光三一九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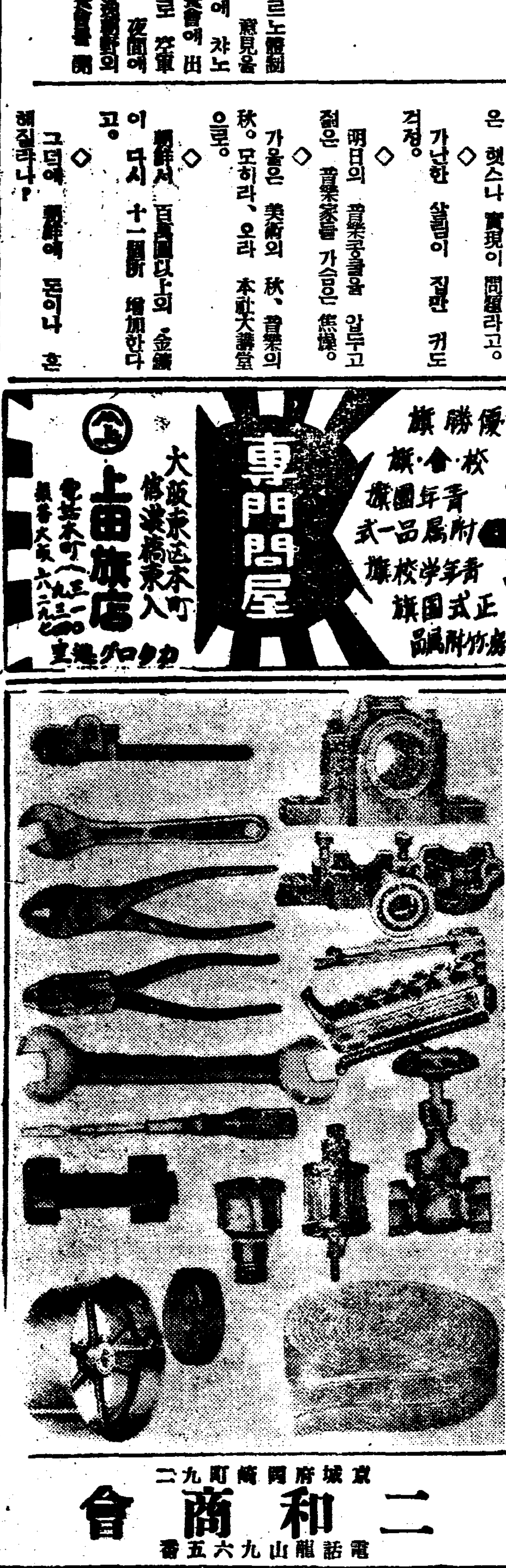
九龍虫 三生醫院 京城府黃金町

恩給 長期低利立替 新利用及借換 京城樓閣町一六○ 鄭商會

蜜蜂과 蜂蜜의 大廉賣 日本最古最大蜂場

どりこの 美味滋養 家庭飲料에 各種贈與物에 病間安等에 누구나 使用하십시오 食料品店에 잇습니다

合資會社 東西洋行賣店 夏屋 專門 卸製造 빽드핸 各國 電話本局七四九番 (地方注文特別割引) 振替京城五九五五番 (京城府本町二丁目八六番地)



諸機械百貨店 (カタログ進呈)
京城府南大門通二九 二和商會 電話龍山九六五番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癩病 回春藥院 釜山府草梁町二八三番地 急告

銀河水 고무신 登錄商標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京城府新設町一三七番地 社長 元胤洙 專務 金景鎭 長電話光③一八三七番 振替京城一七九○四番
世界 運動靴 登錄商標

優美館 貫鐵町 電光三九五
十月二十三日부터 問題의大作封切 유나이팃드社超特作 第一級日本版 리차-드뽀레스라브스키氏大作品 싸우는巨象 로날드 콜맨氏 로-렛다 양그孃主演 英國의印度植民地政策第一頁를裝飾하는 그라이부의數奇한半生을描破한空前의大傑作 P·C·L超特作大名畵 山本嘉次郞 監督作品! いたづら小僧 出演者 伊藤薰、大村千吉、原希足、英百合子、高尾光子、宮崎照子 靑春謳歌! 瀟灑! 明朗의學窓으로부터 이러나는 奧惱와歡喜와 사랑의合奏曲!! 코럼비아提供全發聲 漫畵 愛의起源 大每特輯 國際ニュース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二三三
◇十月二十三日부터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戀愛劇 로지다 監督: 미리온케리구氏 主演: 존볼즈氏 그라데이스소-사드孃
◇샤-만그레바-베루크 特作全發聲日本版 奇怪劇 五百年后의 地球 監督: 하-리래부氏 主演: 칠릿치몬도氏 그로데아델孃
◇大都映畵社超特作品 時代劇 伊達男血笑記 監督: 中島寶三氏 主演: 阿部九州男氏

靑少年 通信社員 募集 小學卒業以上程度 自宅勤務可能 高給 愉快한業務(事務簡易) 月收多大 略歷書入葉書申込 詳細書無代進呈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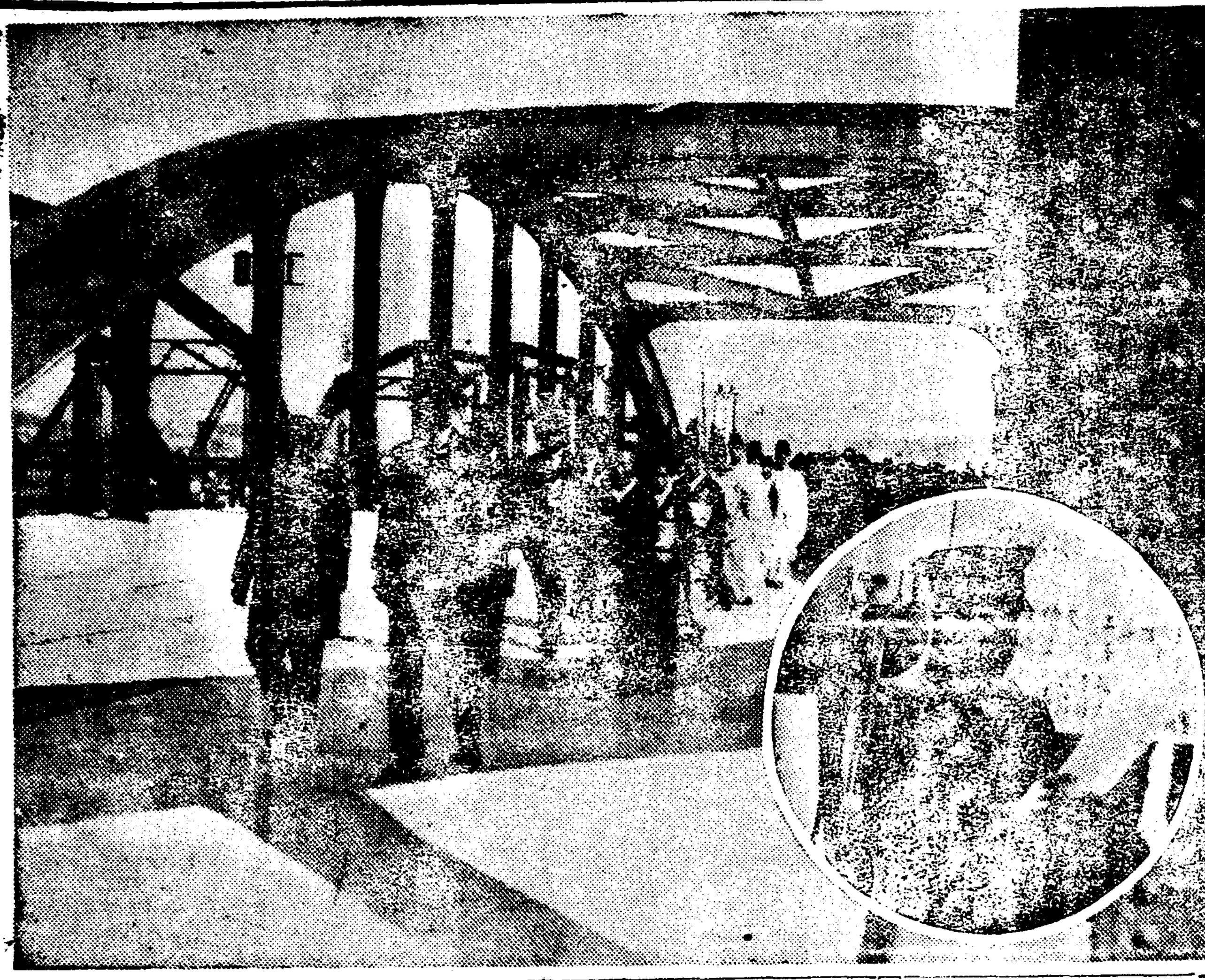
初冬을一步압두고 各地溫度急降下
今日京城은初氷
寒波의驅步!

이십사일아침에 경성시내 청량리(淸涼里)등 교외방면에는 금년들어 처음가는 살어름이 얼엇다 해마다 경성은 교외가 먼저 어는 것으로 작년에는 십일월 삼일에 처음 어름이 얼엇스며 평년은 대개 시월 이십팔일이라고하는바 금년에는 작년에 비교하면 십일일이 빠르고 평년 보다는 닷새가빠르다 이때까지의 긔록가운데는 시월십일이 제일빠른해이엇다고한다 아무턴 금년은 좀 추위도 빠르고 어름도 빨리언모양이다 금년의 추위가 매울가 어떨가를 경성측후소에 물어본즉 대개는 평년의 추위 일것갓다고한다

이제 가을이 닥칠에 피후의작히가 또 다시 서작하야 작금의 천후가 이상스럽게 치웁다 더욱이 금이십삼일은 상강(霜降)이라 상강날 오전 륙시 현재의 각지온도를 보건대 례년에 비하야 일도내지구도가 치웟다한다 ▲中江鎭 〇度(不變) ▲新義州五度(一度低) ▲平壤一度(二度低) ▲仁川四度(六度低) ▲全州二度(八度低) ▲京城二度(四度低) ▲木浦八度(六度低) ▲雄基三度(四度低) ▲淸州八度(九度低) ▲元山四度(四度低) ▲江陵六度(五度低) ▲大邱四度(六度低) ▲釜山一〇度(二度低) 각지의 온도와 례년과의 비교는 이상과갓거니와 이에대하야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의 말을 듯건대 이는 조선지방에잇는 고기압(高氣壓)관계로서 일시적변화이나 즉시회복되리라 한다

첫선보이는漢江大橋 竣工式盛大擧行
南總督以下官民四百餘名參席
午後엔官民合同祝賀會

제작년팔월이십일일에 긔공하야 공비 이백십오만팔천오십칠원의거액을 드려 직공인부 연인원사십일만팔천인을 사역하야 만이년만에 준공된 한강철교의준공식은 이십사일 오전열시이십분에 한강교 다리어구에서 남총독(南總督) 대죽내무국장(大竹內務局長) 이하관민사백여명의 참석으로 성대히 거행하엿다 남총독의 고사(告辭)와 경긔도지사대리 좌백(佐伯)내무부장 감자(甘蔗)경성부윤 하전(賀田)경성상공회의소회두등 제씨의 축사가잇슨뒤 준공식을마치고 석원의차랑(石原儀次郞)씨일가족삼부처의 초도(初渡)로 래빈일동이 뒤를이어 화려하고 굉장한 새철교의개통식을 마치엿다 오후한시부터는 경성부주최의성대한 축하회가잇섯다 이다리는 기리팔백사십미돌팔십삽센치삼이나된다 이철교가 개통됨에따라 복잡하든 인도교의 교통은 훨신완화되게되엿다 이날 이철교일대에는 구경꾼일만여명으로 대혼잡을이르켯다 (사진은 초도식광경과 남총독의고사=원내)



南總督告辭

玆에 漢江大橋의 渡橋式을擧行함에當하야 一言을述하려한다 元來漢江大橋는 京城에서 西으로仁川에至하야 南으로 釜山에向하는 幹線道路의 要衝에當하고 特히其直前에는永登浦、鷺梁津의 要區가잇서 其交通의繁劇함이 他에만히其類를 보지못하는바이다 이로써 舊來의假設的 橋梁으로서는 到底히今日의用에 充當치못하는故로 昭和九年八月新橋架設의工을 起하야 財를費하기 二百十五萬圓、月을閱하기 二十六個月、이제야 完全히 其工을竣하엿다 本橋는其形容이素樸하고 其結構가 莊大하야 實로全朝鮮에 冠한者로서 今後永久히 交通便에供하고 特히京城及其近郊의發展에 寄與하는바 클것이다 官民은 잘本橋架設의趣旨에體하야 道路橋梁의維持補修에 努力하고 其效用을 完全히함에遺憾업기를期할것이다

昭和十一年十月二十三日

滿洲丸遭難

【若狹電話同盟】若狹無電局海難 이십삼일오전여덟시십분 소준(小樽)항바게서 산하(山下)긔선주식회사소속 만주환(滿洲丸)(七二五四噸 乘組員四十餘名)은 폭풍우로 조난하야 선체는 각각으로 침수되고잇서 구원신호를 발하엿다 동선은지난 이십일일에 석탄을싣고 소준(小樽)으로부터 동경(東京)으로 귀항하든중 맹렬한 폭풍우로일단 도라와서 피난하고잇든중 조난된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산하긔선동경지점입전에 의하면 승조원은 전부무사하다고한다

一夜兩地에强盜發生

看守服입은壯漢이 料亭에侵入强奪
公州本町에覆面强盜

이십삼일 오전네시반쯤에 공주읍본정(公州邑本町)료리집 등전주조(藤田主造)의집에 기리한 자가량되는 칼을든 강도한명이 침입하야 현금 일백삼십여원과 녀자금시계한개(백원가량)와 남자금시계 한개(이백원가량)와금원어치의 금품(팔백원)을 합계천여원어치의 금품을 강탈해가지고 도주해버렷다 범인은 삼십세가량되여보이는 조선남자로 검은「쓰메에리」양복을 입고 검은주건으로 나한것을 얼핏보아서는 경관기톤 차림을 차렷다한다 범인은 그 집에 드러가서 이러나거라 하면서 소리를 질러 주인을 깨워이르켯는데 주인은 경관이 림검하러온줄로 알고눈을 뜨고 이러낫더니 강도는 칼로겨누면서 금고를 열라고협박하야 전긔 금품을 강탈해가지고 도주해버렷다 충남경찰부에서는 이십삼일아침에 꼿경기도경찰부로 범인을 붓잡아달라는 통기를하여와ㅅ다

【公州支局特電】이십삼일오전네시쯤에 공주본정(公州本町)에잇는 「가도야」라는 일본내지인료리집에 간수복(看守服)을 입고 간수의칼을 가진 강도한명이 침입하야 주인을 협박하야 현금 일백삼십원과 금시계등을 강탈하여가지고 도주하엿는데 경찰에서는 방금 범인을 엄탐중이다 그리고 간수옷과 패금은 당지 산성정(山城町)에잇는 모간수의것을 훔친것이라고한다

棍棒으로威脅 通行人掠奪
論山郡下道路에서

이십이일저녁 일곱시반쯤에 충남론산군련산면림리(論山郡連山面林里)리봉림(李鳳林)(?)은 련산정거장에서 안일정가량되는지점인 련산면청동리(靑洞里)와 북동리(下洞里)사이에잇는 삼등도로에서 기리석자가량되는 몽둥이를든 강도두명을맛나서 현금 오원사십삼전을강탈당하엿다한다 그는대전(大田) 장에가서 조히를 팔고서 자긔집으로 도라가든 도중에 전긔장소에서 삼십세가량되어보이는 강도한명 이십팔구세되어보이는 강도한명을맛나서 위협을밧고 가젓든돈을 전부빼앗겨버렷다한다 충남경찰부에서는 각지로 통기하야 범인을 찻는중이다

電話事務員見習募集

경성중앙전화국에서는 방금전화사무원견습을 모집중인데 응모자격은 년령만십구세이하의 조선인녀자 일본내지인녀자로 조선인은 중등정도 학교졸업이상 일본내지인은 고등소학교졸업이상이라야하며 신청긔일은 시월말일까지라한다 지원자는 지급히 중앙전화국서무계에 신청하기를 바란다

安邊農組準備會事件
第一回公判開廷
檢事는兩名에各一年役求刑

소화구년오월에 함남안변군학성면문내리(咸南安邊郡鶴城面門內里)를 중심으로 안변농민조합조직준비위원회(安邊農民組合組織準備委員會)를 설치하고 그동리에사는 농민십여명을 동지로획득한다음 농촌적화를 목적하고 적색사상을 선전한혐의로 지난구월 경긔도 경찰부에 체포되야 엄중한취조를 받든다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송국된 안변군학성면 문내리 리동천(李東千)(二○) 김칠성(金七星)두명에관한제일회 공판은 이십사일 경성지방법원 형사부제사호 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하에 향천(香川)검사관여미래 열리엿다 재판장으로부터 적색사상을 갓게된동긔와및 그들의범죄사실에관한 사실심리가잇슨다음 검사로부터 징역일년씩의구형이잇섯는다 언도는 오는 ...일에내리기로되엿다

同飮한者를押來하야 裏面關係를嚴調
西大門强盜逮捕後聞
犯行時의懷中刀等은리웃집에서發見

서대문정(西大門町)강도범인방원봉(方元奉)(二○)의 공범으로지목되는 최경원(崔敬元)(二七)을체포하여온 종로서사법계에서는그범행직후 시내황금정 선술집에서 전긔최경원이외에 그와가티황금정 사정목송욱좌에서 야경(夜警)노릇을하고잇는 정태주(鄭泰柱)(二七)도 술을먹은것이 판명되여 이정태주에게도 상당한의심을 두고 엄중조사중인데 지금가타서는 이들이모다 술만가티먹은것만 말하고 그밧게는 함구하고잇는 형편이나경찰에서는 의외에 이들이긴밀한련락을매저가지고 혹은 서대문서 관내등에서 발생한 미체포의 강도사건의 범행까지 한것이나아닌가하야 방금그들의 려면관계를 세밀히 조사하고잇다 또강도범 방원봉의 범죄의 직접증거물인 회중도(懷中刀)와 변장할때버린 옷이며 복면한수건은 피해자의 이웃집인 서대문정일정목 일백오십번지 임용호(任龍鎬)집의 굴뚝속에 감추어 둔것을 이십이일 오후에 발견하엿는데 이때문에 그집에서는 한동안 불을때여도 연긔가나가지안허 중오방에서 자게되엿다는 우수운이야기도잇다

大連丸遭難

【釜山電話同盟】일본 「사도베ー」지우조선 대련환(大連丸)(六七一噸)은 이십이일 목포를 무쓰고 화태(樺太)로부터 상주환(相州丸)(二二二九噸)을 끌고소준(小樽)향 항해도중 천매도(天賣島)남방에서 해리되는 상에서 폭풍을만나 오후여덟시 사십오분에 드듸여 구원신호를 발하엿승으로 부근을 항행하고잇든 산하(山下)상사회사소유춘래환(春來丸)(二、一五二噸)이수신 곳 현장에 급행하야 수사하여보앗스나 선영을 발견치못하고 계속하야 수사중인데 엇저면 침몰한것이나 아닌가 생각되다고한다 그리고화련이오든 상주환만은 이십사일오전여섯시쯤에 증모(增毛)해안에 표착하야 목하륙지와의사이에 련락을취하야 가며 구조작업을하는중인데 승조원은 무사한모양이라고한다

설월도로와 교량(橋梁)에 이백만원 청진나남간(淸津羅南間)의 포장(鋪裝)공사비가 사십만원에 달한다는바 후자는 이개년계속사업으로 명년도에는 우선 이십만원만을 계상하기로 되엿다한다

"목돌림"病流行
仁川署豫防注射施行

【仁川】급격한변화를 계속하야오는 금년의긔후는 또다시가을에도이상한 추위를전하야주고잇다 이와한가지 우리에게 적지안흔 위협을주고잇는바는「지푸테리야」(속칭목돌림병)가 유행하야지고잇다 이에인천경찰서홍(洪)위생주임은 부임이래 방역에양호한성적을 내여오는바 한가지 금추에도 일반아동의위생을 위하야 금시월부터 명년사월까지매월제이제사 토요일오전중에는검역소(檢疫所)덕생원(德生院)에서 오전중에 일반아동(만한살로부터 십세이하의아동)에게 「지푸테리야」예방주사를 시행하리라는데 이와한가지 일반가정에서도 만흔리용이잇기를바란다고한다

滿都의視聽集中
終幕가까운綜合競技
明日은柔道、庭球戰擧行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柔道戰은 今二十四日午後一時부터 鐵路靑年會運動室에서 一般部七十餘名의 靑紅戰과中等部의 團體戰이열리게되엿고 同日同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는 庭球戰을 行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劍道戰은 二十五日午後一時、力技는 同日午後六時부터 모다 朝鮮日報社講堂에서열리게 되엿는데 力技部에는멀리 平壤으로부터 俊鋭四力士가出場케되여 中央力士들의 一大威脅이되여잇다 綜合競技의 最終幕을 華麗하게 빗내일全朝鮮蹴球爭覇戰은 十月三十一日부터 連四日間에 亘하야 中等部 專門部 一般部戰을 擧行할터로 同蹴球戰의 申請期는 來二十六日까지로 臨迫하엿스며 延專對普專籠球爭覇戰은 來三十日午後四時부터YMCA에서 行하기로 되엿다 이리하야 滿都스포츠팬의 視聽은 오로지 綜合競技에 集中되고잇다

共軍과土兵合流 市街地輪襲計畫
移住同胞들의續續避難으로 惠山署管內大混雜

【咸興】수일전부터 해산진건너의긔회를 엿보고잇는 공산군김일성(金日成)은 토병만순(萬順)이 만군(萬軍)(십이도구와 이십도구 시가지를 습격한 부대)의일대 이백여명과합류(合流)하야서 무송현(撫松縣)에잇는 혁명군(革命軍)본부에서 탄약(彈藥)과다수를 공급바더가지고서 다시칠도구(七道溝)에잇는 애국군(愛國軍)의 이백명과 서로련락하야 각히아래와가티 손을노나서 각시가지를 습격할계획을세우고잇다

金日成	十四道溝市街地
萬順	十三道溝市街地
愛國軍	八道溝市街地

이러케 공산군들이 전에볼수업든 맹렬한 행동을 시작하야 각지를 륜습(輪襲)하고 잇슴으로 부근일대에 살고잇는 이주동포들은 륙속조선내지로 피난을하야와서 혜산서 관내각지는 대번잡을 이루고잇다

土木景氣의咸北

【羅南】약진함북의 명년도예산요구액도 차츰각방면에서 작성되고잇는데 우선 토목방면(土木方面)에만 이백사오십만원의 도로비(道路費)가 계상되고잇서 그

天氣予報

概況 大陸高氣壓은 東으로 移動하야 今朝는 朝鮮으로부터 日本內地西部에 퍼지고잇고 千島方面에는 優勢의低氣壓이잇고 蒙古에도 弱한低氣壓이생겻다 滿洲及北朝鮮은 흐리고 朝鮮과日本內地中部는 개이고 琉球諸島及東北地方以北은 흐리고 季節風이 좀세이고 南朝鮮의氣溫은 昨朝보다 四度內外내렷다

豫報 今夜는 개이고 明日은 날이개엿다가 흐리다 京畿道全區도 이와갓다

昨日最高	一四、三
同 最低	四、六
今朝最低	〇、八
今日正午	一三、九

第二回 全朝鮮音樂競演大會
二十四日午後七時半 (入場料 五十錢均一)
於 本社大講堂 朝鮮日報社

大日本特許局御審査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藥物治療에 失敗한 患者여!
조타는약을 다써보앗서도 낫지안는림질이거든 이 긔게를 쓰시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여도 과학(科學)은 사람을 속이지안는것입니다 과학에서나온 이긔게는 반드시당신의긔대를 저바리지안습니다
科學療法에 새로히 着眼하라
頒布代 一具 九圓二十錢 (送料實費)
(淋疾自宅治療法無代進呈 要二錢切手)
製造元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京城古市町
發賣元 平山幸運堂 京城昌成町七三 電話光(長)二一九一番 振替京城二三八六六番

肺病 ろくまく炎 肺尖カタル は治る

正當한養生 綜合効果잇는良劑에依하야

高價藥配劑公開

肺病學者良藥 (結核征病體驗的全面記)

別製治肺劑는 左와如한 二十三種의 綜合醫治効能을 具備한 處方으로서 許可劑公認配劑를玆에公開함

結核治療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五種藥綜合配劑

結核解熱劑 一키로瓦 二百三十圓 外一種藥配合

世界醫療界에서、結核解熱劑로써最高級의權威잇는 高價藥을가지고 配劑하엿다。其作用은 結核毒素에拮抗하야頑固한結核熱을 解消하야、發熱에서오는 隨伴症狀을 減退식힘.

健胃强腸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四種藥綜合配劑

鎭咳祛痰劑 一키로瓦 七百四十圓 外二種藥配合

結核患者의가장고롱하는것은기침이다。鎭咳식히는것은 患部의動搖를막고、苦惱를除去하야、安眠케하고、食慾增進에必要不可缺한것으로本劑는最新의鎭咳祛痰劑로서奏効確實하다고現代의治療界에서賞用되고잇는鎭咳祛痰劑로、優良하고도高貴藥인것을配劑하엿다。

食慾促進劑 一키로瓦 二百六十圓 外二種藥配合

本劑도 亦歐米의醫療界가 學者賞用하고 더욱 我國政府制定 日本藥局方의 收載藥으로써、胃腸을刺戟하야、食慾을增進하고消化가 顯著히빨으며 結核性의消化不良又는 食慾不振에 奏効한藥劑로서高貴한것도 配合하엿다

消化劑 一키로瓦 四十七圓 外一種藥配合

本劑는 世界醫學界의 公認藥 重하優良한 消化劑로서 高貴한 것도 配合하엿다

滋養强壯劑 一키로瓦 五十二圓

肺結核과肋膜炎은 身體를消耗식히고 體力을低下케하며 더욱病勢를 惡化식힘으로 體力을强化케하고 도抵抗力의增加를圖謀하기爲하야 日本藥局方收載의 滋養强壯劑中優良한것과 高貴한것을 配劑하엿다

鎭靜劑 一키로瓦 五十二圓

結核患者特有의 神經興奮을鎭定하고、不眠과盜汗과를고쳐주는高價藥을配劑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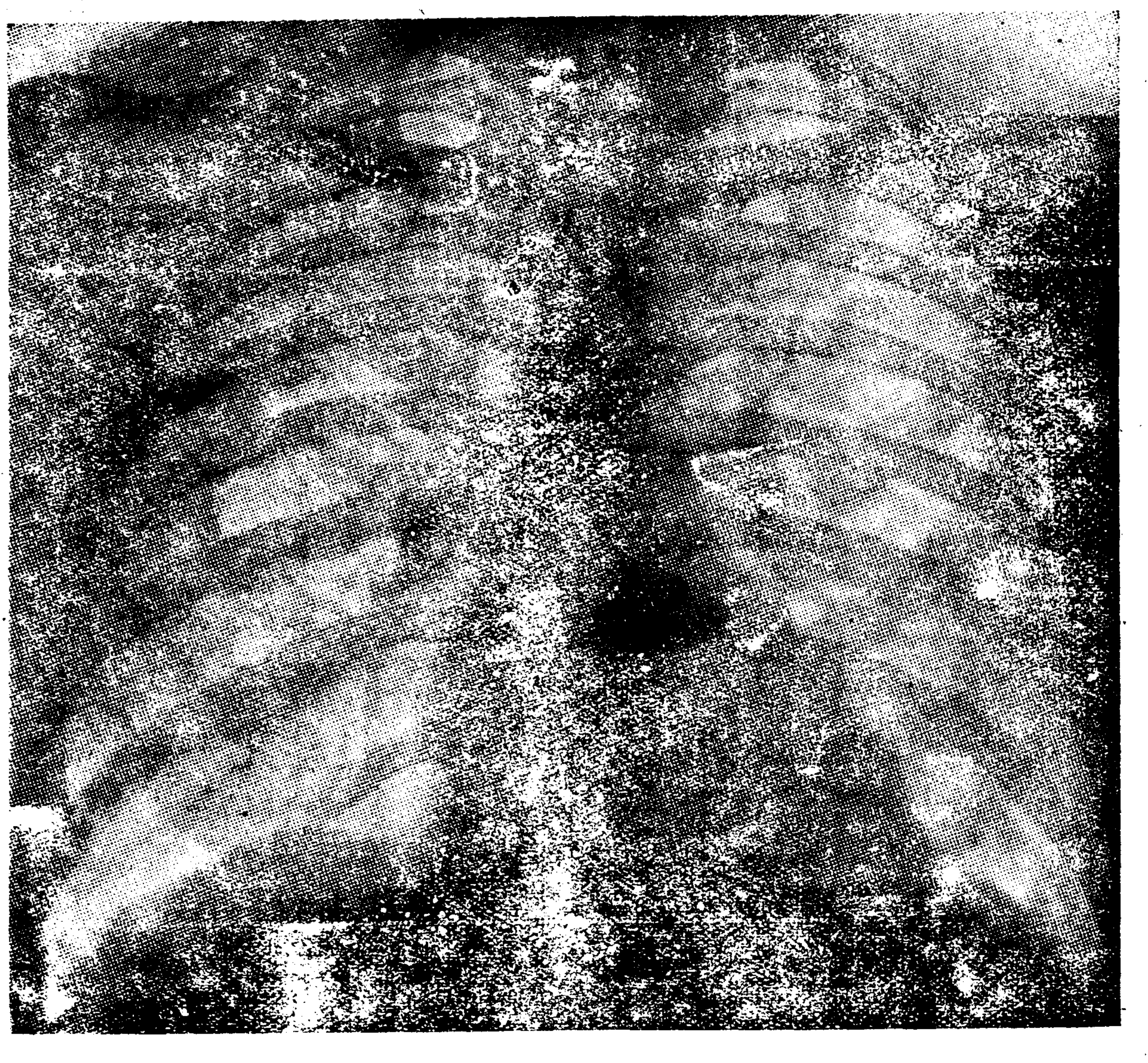
ホルモン劑 一키로瓦 一千六百圓 一키로瓦 一千二百圓

本劑는東洋에서二千年來、治療醫學上그効驗을認定밧고、救急藥으로써萬病에使用되는 高貴藥이다 一種은어떤動物千頭中、二十餘頭박게取할수업는高貴藥이다。다른一種은히마라야山幽谷에棲息하는動物에서採集한 엇기어려운 호르몬劑로 前記二種의 高貴藥이配劑되엿다。

●肺病患者는本劑로써一日이라도빨리回復되기를바란다

特製治肺劑(八日分)十圓 德用品十六日分十九圓
別製治肺劑(八日分)十五圓 德用品十六日分二十八圓

피가되고살이되는作用잇는 有田血液 三週間分 四圓



렌도겐으로본治療狀態의肺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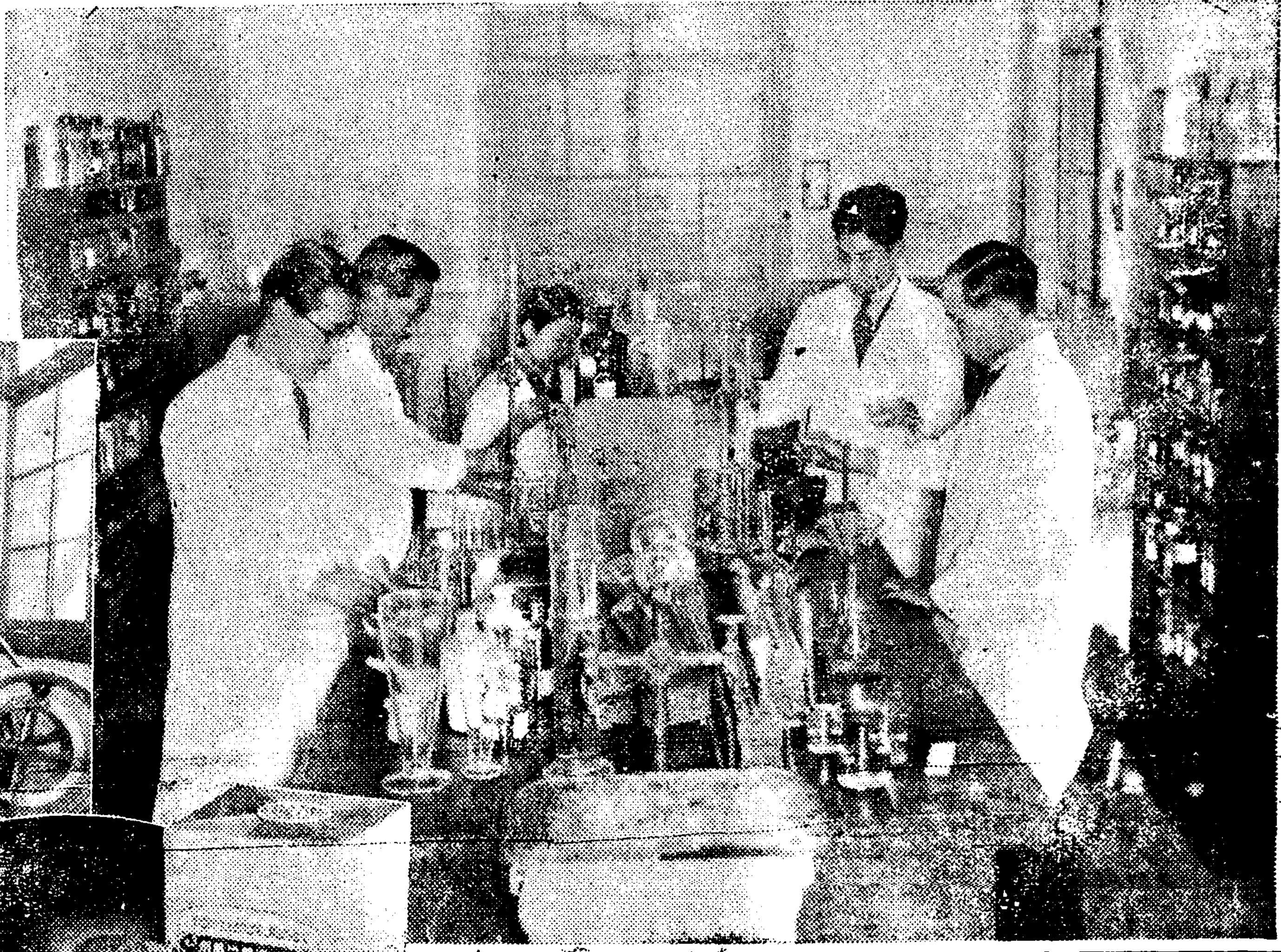
肺病은낫기쉬운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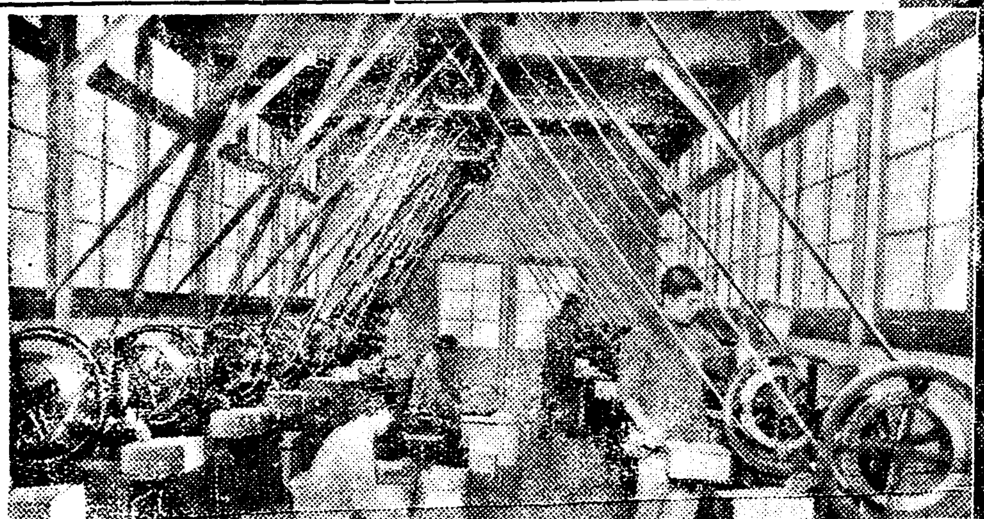
옛날은 肺病을死病과가티 생각하엿스나 부루쿠할드氏가 死亡한사람의屍體를解剖한結果는 百人中九十八人이結核에걸린痕跡을보혓고 그後諸處의大學에서 硏究調査한것도 모다同樣의 數字를보이고잇는 事實을말하자면 모르는사이에걸렷다 모르는사이에 낫는것이다 結核病은 낫기쉬운病이라는것을말하는것이다 百人中九十八人까지가 結核菌에侵犯되여잇지만 實際로發病하는者는 我國에서 約百人에一人의比例로 그것도 體質生活狀態其他發病의原因을가진사람이잇다 그러나 發病한사람이라도 進步한醫藥과 正當한自然療法에依하야 全快하는것으로 現在歐米에잇서서나 我國에잇서서나 年年結核患者가減少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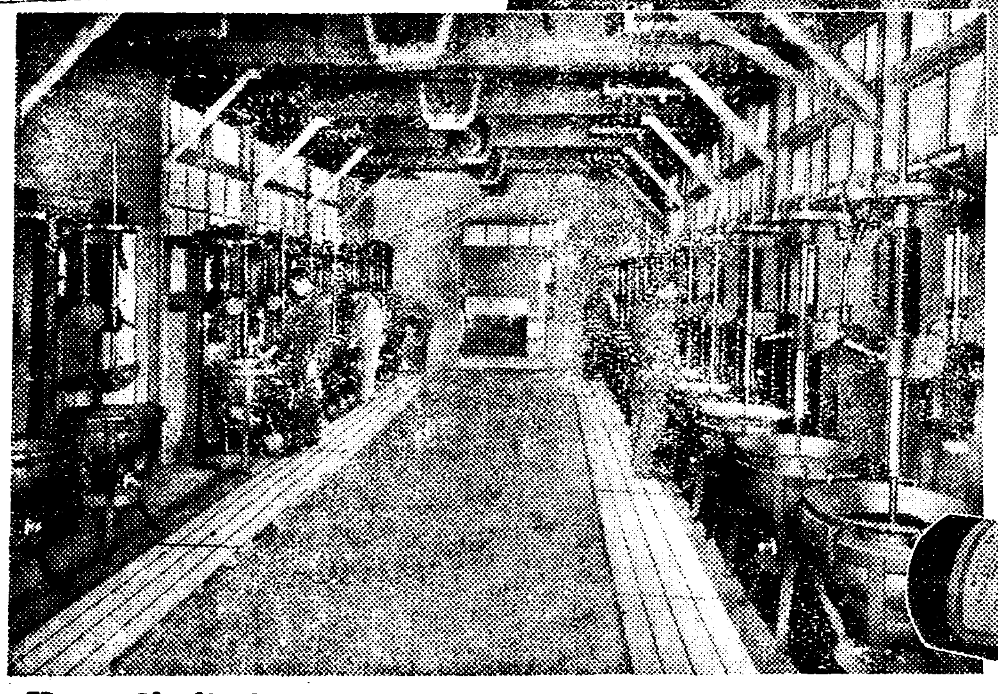
우리有田ドラック商會에서는 結核菌의發見者인꼿호博士의 結核治療의學理에基하야 多年硏究한結果 自宅에서容易히行할수잇는 空氣日光精神等의 養生法과 別項公表와가튼 和漢洋의綜合效果잇는 治肺劑를發見하야 이에依하야 多年에亘하야 多數의全快者를내고잇는것은 肺病肋膜炎이養生과良藥에依하야낫기쉬운病인것을立證하는것이다。

無代進呈

結核病으로 苦惱하시는患者를爲하야 養生書「新生」을無代로贈呈합니다 希望하시는분은病狀을 詳細하게 年令住所姓名을記入하야 京城府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專賣所로 申込하시오







結核治療劑의硏究에沒頭한硏究室의一部
完備를자랑하는有田도락구製藥工場의一部

그르치기쉬운肺病療養法

肺病을治療함에는 ~養生과良藥의選定이肝要

結核征病體驗記

一月初의酷寒에걸넌感氣가 낫지안코 나이먹은탓인저 점점身體가衰弱해지므로 共濟會病院에서診察을 바드니까 肺尖가다루라고診察을바덧습니다

肺尖가다루는 肺病의 初期라고 듯고서 두근두근하지안흘수가업서 마음이 安定치안헛습니다 年老하야이世上에 所用이업는몸이언즐은아나 醫藥에民間藥이라고다음다운治療에 迷惑하엿습니다 滋養을攝取하면 조라고 생각하아너무過히 섭취하야도리혀胃腸을 傷하고 病勢를惡化하야 身體는말할수업시衰弱하여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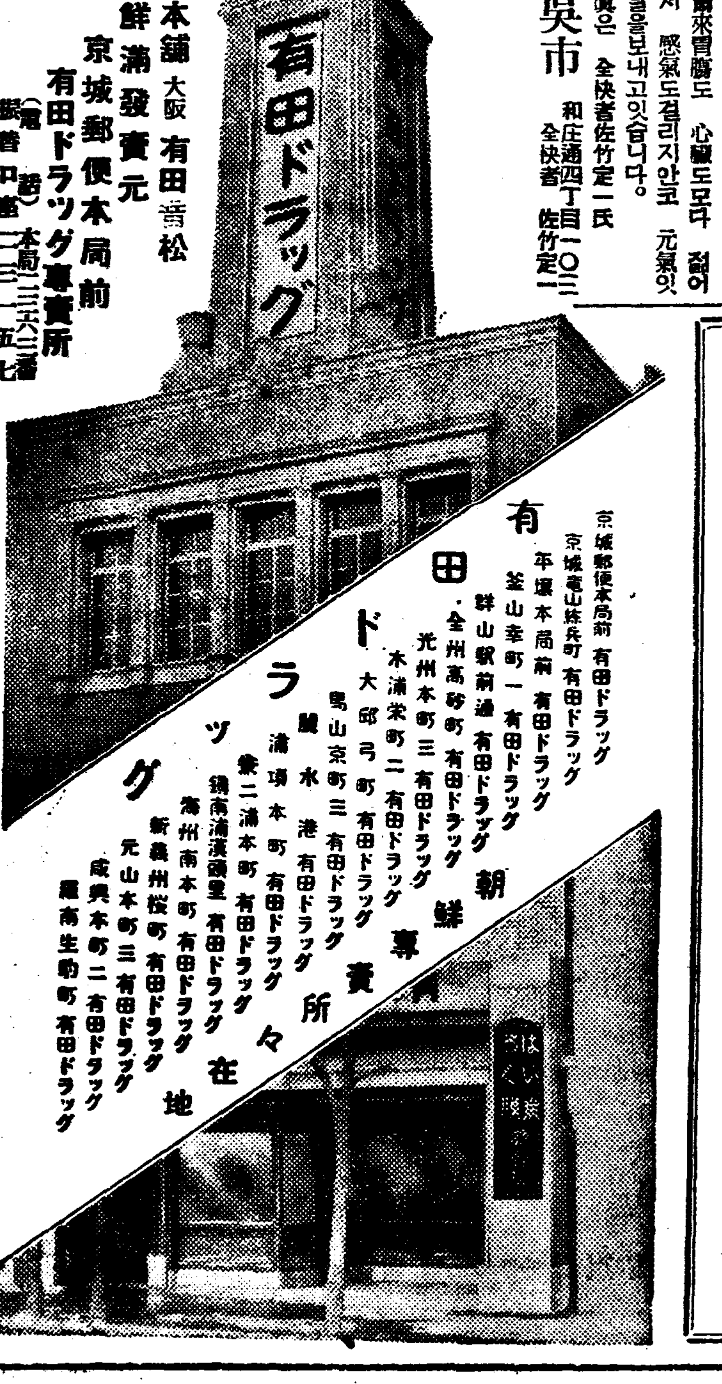
經過는오래 끔뿐만 아니라 어물어물하는사이에봄도지나고 初夏도지나 버렷습니다 이러케 憤悶하고잇슬때 新聞紙上에서 有田氏의 征病論을보앗습니다

有田氏는 日肺病은自然에反한 生活을하니까 생긴다 그런데 一般傾向을 보면 肺病이되면 근심하야이醫師저醫師의診察을바드며 藥에迷惑되고養生이라면肉食이다滋養食이라하고 공연히 美食肉食에 偏重하야 弱한胃腸을 다시 弱하게하면 病에對한 抵抗力을 一層더 衰弱하게하고 發病의根源을 이저自然을 無視한 療養으로 肺病은決코낫는것이아닙니다

그러므로이 病을 治療함에는 醫藥만을依賴치말고新鮮한空氣日光水土等을親히하야自然에基한生活을人體에備하는自然療能을發揮식혀 一方良劑를 服用하면結核拮抗作用도 旺盛하게되고 征病의目的을達할수잇다는데 나의過去의養生法이잘못이엿다는것을 알어꼬吳市中通六丁目의有田ドラック專賣所에 사람을보내엿습니다 專賣所主任으로 부터 有田氏의征病法을詳細히듯고如何히조흔藥을먹어도藥만밋고養生에注意치안는他力本願의療養으로는낫지안치만 生活과自己의 日常먹어난것을 먹어서 養生하도록하면良藥의綜合的效果는 特別히나타나

結核病征服은 斷然코 不可能이 아닌意味를强調하야療養方法을敎示하여주엇습니다 이天理에맛는養生法과綜合藥劑와에期待를하야服藥한바期待는的中하야熱은나리고괴롭든기침도나어서食慾도增進하엿습니다 그後도主任께서 直接養生法을 아르켜주어 服藥養生을繼續하는 中血色도 조화지고體重도增加하야 何等의 病的症狀도 認定치안코 드듸여 全快하엿습니다。爾來胃腸도 心臟도모다 젊어저서 感氣도걸리지안코 元氣잇게날을보내고잇습니다。寫眞은 全快者佐竹定一氏

吳市 和庄通四丁目一〇三 全快者 佐竹定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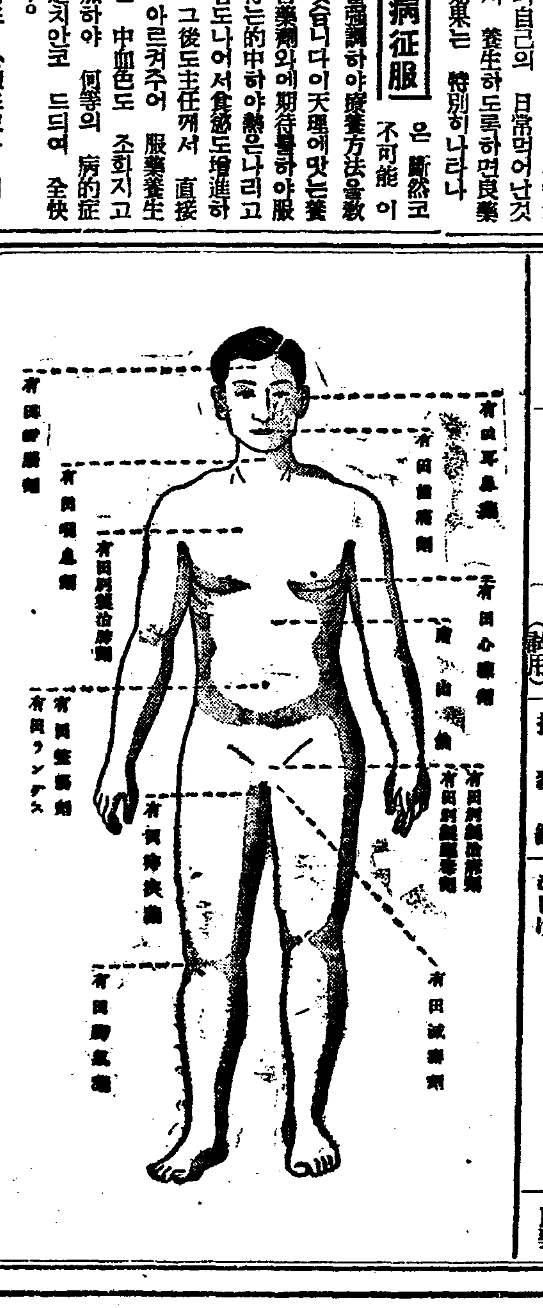


本舖 大阪 有田音松
鮮滿發賣元 京城郵便本局前 有田ドラッグ專賣所
(電話)本局二三六二番 振替口座二三一五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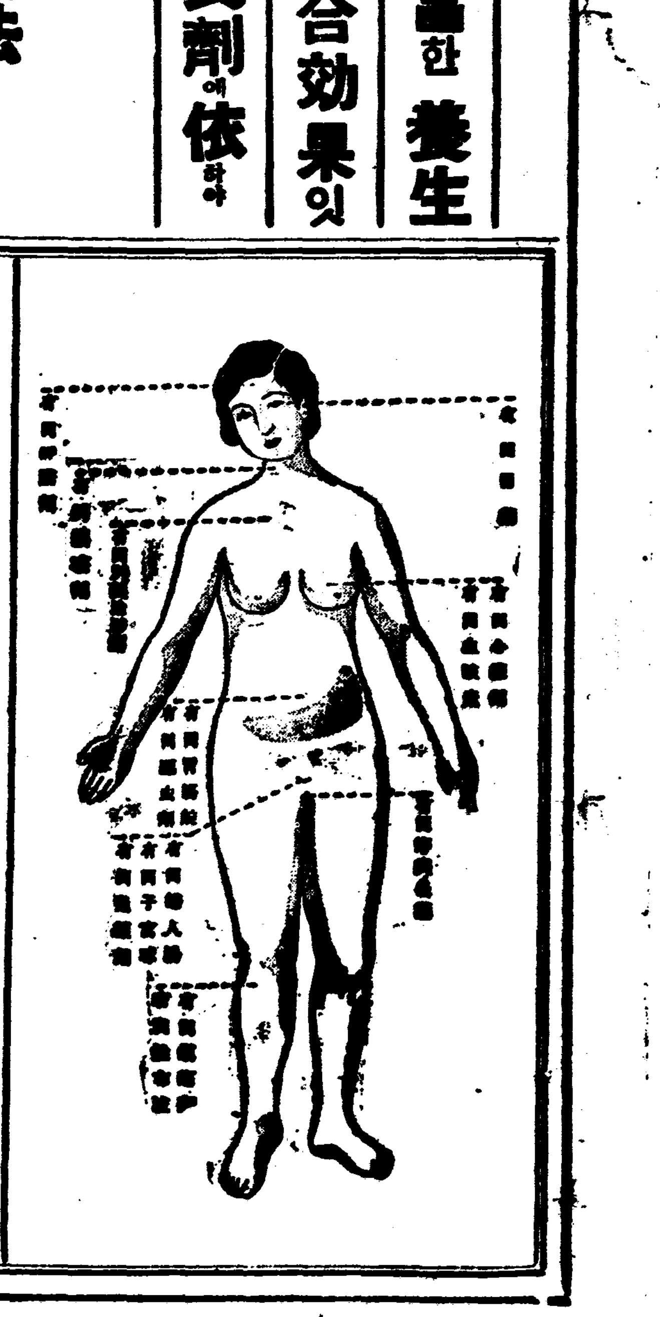
有田ドラッグ朝鮮專賣所々在地

京城郵便本局前 有田ドラッグ
京城竜山練兵町 有田ドラッグ
平壤本局前 有田ドラッグ
釜山幸町一 有田ドラッグ
群山驛前通 有田ドラッグ
全州高砂町 有田ドラッグ
光州本町三 有田ドラッグ
木浦榮町二 有田ドラッグ
大邱弓町 有田ドラッグ
馬山京町三 有田ドラッグ
麗水港 有田ドラッグ
浦項本町 有田ドラッグ
兼二浦本町 有田ドラッグ
鎭南浦漢頭里 有田ドラッグ
海州南本町 有田ドラッグ
新義州桜町 有田ドラッグ
元山本町三 有田ドラッグ
咸興本町二 有田ドラッグ
羅南生駒町 有田ドラッグ

잘듯는有田ドラッグ製劑一覽



適應病名	方名	容量	定價	効能	藥型
腦病	有田腦髓劑	八日分	參圓	神經衰弱症、頭痛止、腦病一切	錠劑
心臟	有田心臟劑	八日分	四圓	心臟病一切（頓服用）	丸藥
結核消化	有田ラングス	八日分	參圓	結核性消化不良	錠劑
鎭咳	有田別製鎭咳劑	一〇〇錠	壹圓	祛痰●鎭咳	錠劑
	有田鎭咳劑	一〇〇錠	五拾錢		錠劑
解熱	有田特製解熱劑	三日半分	壹圓	熱病、感冒一切	錠劑
不老長壽	南山仙	六〇錠	五圓	急性、慢性胃腸病、中風、老衰	錠劑
	新南山仙	三〇錠	一圓八十錢		錠劑
喘息	有田特製喘息劑	八日分	五圓	喘息、氣管支加答兒	丸藥
慢性胃腸	有田胃腸錠	卅五日分 / 廿一日分 / 七日分	拾貳圓 / 八圓 / 參圓	胃擴張、胃痙攣、慢性胃腸加答兒、消化不良	錠劑
痔疾	有田痔疾藥	一八〇錠 / 八〇錠	壹圓 / 五拾錢	痔疾一切（內服）	錠劑
	有田痔疾坐藥	五個入	參拾五錢	痔疾一切（肛門挿入藥）	坐藥
婦人病	有田子宮劑	八日分	壹圓五拾錢	子宮病（內服）	丸藥
	有田子宮球	五個入	參拾五錢	子宮病（膣挿入藥）	膣球
	有田通經劑	八日分	壹圓	月經不順、月經困難	丸藥
痳病	有田別製治痳劑	八日分 / 三日半分	八圓 / 四圓	急性、●慢性痳病一切	丸藥
	有田特製治痳劑	八日分	四圓		丸藥
	有田尿道坐藥	二十本入	五拾錢	痳病（尿道挿入藥）	坐藥
梅毒	有田別製驅毒劑	十七日分 / 八日分	八圓 / 四圓	梅毒、胎毒、下疳、橫痃	丸藥
	有田特製驅毒劑	十七日分 / 八日分	六圓 / 參圓	梅毒性ノロイマチス、ルイレキ	丸藥
	有田風藥	三日分	貳拾錢	風邪一切	錠劑
	有田目藥	一瓶	參拾錢	眼病一切	水藥
奉仕藥	有田胃腸散	四十日分 / 十日分	七拾錢 / 貳拾錢	過飲、過食、胃腸過多症	散藥
	有田婦人湯	七日分 / 一日分（試用）	七拾錢 / 拾參錢	血の道、月經不順、產前產後、こしけ	煎藥



추초장!

家庭

이래저래 시비가 만흔 녀자의 률동교육

본래 그것이 딴쓰와는 달라 오해 해서는 안될일

요사이 녀학교에서 가르치는『겐』는 그전과가
라 단순한『아프로갓』『우향우』의 등속이 아니
라 다리도 번쩍번쩍치켜 들고 궁둥이도 흔들흔
들 내두르고 아조 딴쓰에 가깝습니다。 그러고
보니 완고한 부모들은 왜 양춤을 가르키느냐고
맛당치 못하게 생각하는데 청년들로 말하면 도
리어 그런 얼치기는 딴쓰도 아니요 아모 것도
아니라고 비방해 말합니다。 이편 저편으로 반
대를 당하는 학교당국의 처지는 실로 딱한점이
업지 안습니다。 그러타고 곳 딴쓰를 가르치자
는 말도 못 되고 또 그러타고 새로운 시대에
맛는 새로운 체육을 무시하자는 말도못됩니다。

본래 녀학교에서 가르치는것은 딴쓰가 아닙니다。 체육을 본위로 삼는 률동(律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편의 반대나 모다 정정한 반대가 될수수 업습니다。 딴쓰와는 다른 그것을 가지고는 양춤이라고 욕하나 딴쓰를 잘못 가르친다고 비난할 수 업는 일입니다。 사람은 더구나 녀자들은 몸이 튼튼해지는 것도 조치만은 행동이 민첩하고 몸매가 매끈해지는것이 그보담 못지안케 조흡니다。 그러키때문으로 률동교육이 절대로 필요한것입니다。 본격적 딴쓰를 즉접가르킨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두지안흘라고 질문하실 분이 잇슬찌 모르지만 조선사회의 현재정세로/그것은 곽친정도 못 할일입니다。 그러키때문에 률동교육정이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

서양人사람들은 남녀로소 할것 업시 서로 얼싸 안고 껴 안고 딴쓰를 하더라도 상관이 업는데 왜 조선서는 그렇케 해서 못씁니까? 조선서도 이미 서양문명을 바더 드리는 짐이니 딴쓰까지 수입하고 정식으로 가르키드라도 무방치 안습니까? 그런 말을 하실분이 잇슬것입니다。 그역시 얼른 들어서 그럴듯도 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서양서는 이미 몟천년 몟백년 자과네 습관으로 해내려온것이니까 별일이 업지오마는 조선서는 내동안해본것을 갑작이 하자니까 가진 폐해가 다생기는것이랍니다。 동경 대판서 딴쓰를 허가한이후로 소위 유한매담들이 쏘다저생기어서 요사이도 사회의 한문제ㅅ거리를 이루고 잇습니다

딴쓰는 남녀가 혼동해서 하는데 제일만히 폐단이못습니다。 률동과가티 그러케 한다면 아모 관계도 업습니다。 또 딴쓰는 출하여 아비하게 흐름 재미업는무석도 엇지 안습니다。 률동과가티 그러케 한다면 아모 관게도 업습니다 률동으로 헤하시는것은 한갓 자긔네의 완고를 죠로하는데 지나지 안습니다 체육을 아조 부인하면 몰라도 그러치 안흔 이상 률동을 말할수는 업습니다。

세상일은 무엇이나 시비가 만흔데 그 시비가 정당한 때도 잇지만은 아조 주책이업는 때도 드물지를 안습니다

童話 하늘에올라간 오누이 ❶

盧良根

『잔치집에가서 내一떡이랑지짐이랑 만히 어더다줄께문 뚝뚝걸고 잘들놀아라 응一』

『밤대추두 어더와야지머一』

『아一디,왕밤,대추,고기서껀 다 어더다 주구말구』

『엄마 그럼 얼는 오온』

『그래 얼는 다녀오마一』

어머니는 이렇게해서 오누이(남매)를 집에 떼여두고 고개넘어 잔치집으루 일을 보아주러 갓습니다。

집에남은 오누이는 어머니 말슴대로 밤문을 모두 안으로 걸어닷고 회로가에둘러안저 콩을 복끄으며 어머니가 속히 밤, 대추, 떡, 지집이를 듬뿍이 어더가지고 오시기를 기다렷습니다。

그러나 암만기다려도 그어머니는 도라오시지 안헛습니다。

어머니는 잔치집에가서 부즈런히 일을보아주고 떡이며 고기서껀 한푸레미 어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릴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흥흥거름을 적어서 고개를 넘어옵니다。

어머니가 붉어나케 고개마루턱까지 올라서니까 난데업는 웬 호랑이한마리송아지만한것이 길을 턱막고 안젓다가

『할멈 어듸갓다오나?』

하고 눈을 꿈벅거리며 물엇습니다。

『고개넘어 장선달네집으로잔치보러갓다오네一』

이렇게 어머니는 말하며 한편여프로 슬적 비켜서 오려고 하얏습니다。 그러지만 능청스러운 호랑이는 벌서 치마자락을 웅켜잡고

『잔치집에가서 고기랑 저러케 만히 어더가지구오면서 그래 난 좀 안주구 갈레야一』

으름장거렷습니다。 어머니는 겁이 떨켜나서

『에따一자、』

고기를 한점 얼는 집어주엇습니다。

호랑이는 어느틈에 그것을 홀딱 집어삼키고

『요까짓 것가지구는 어림두업다一지금 내가 배가 고파죽을 지경이니깐 널좀 잡아먹어야 살겟다一』

하구 텀욱 웅켜잡엇습니다。

『잡아먹드래도 내가 이떡구레미나 오리 아이들 갓다주거든 잡아먹으렴 우리아이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구 잇슬텐데一』

어머니는 호랑이를 술술 얼렷습니다。

그러치만 허기가진 호랑이는 그말은 들은척두안쿠

『떡꾸레미는 내가 갓다 전해줄께 그건낭 염려말어라一』

하구 기어히 무상한 오누이의 어머니를 잡어먹엇습니다。

오누이는 그런줄도 모르고 이제나 어머니가 오시나 저제나 어머니가 오시나하며 눈이 빠지게 기두르고잇섯습니다。

하늘에는 벌서 은가루를 뿌린것가티 어여쁜 별들이 눈을 뜨고 반짝거리고 잇섯습니다。달이업는 세상이니까 밤이면 수업는 별들이 달대신 빗나고잇섯든것입니다。나제는 해가업스니까 그냥 늘 흐린날처럼먼一하니 침침한세상이엿습니다。오누이는 등잔에 불을 켜노코 마주바라보면서 침을 생키고잇섯습니다。떡을 기다리는 오누이는 배가고프다못해 쪼르륵소리가나고 내종에는 침만 자꾸 넘어갓습니다。그때에 문박게서

『아가一문열어라一』

그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렷습니다。

『엄마一인제 오시우?』

오누이는 너무도 밤가워서 문압프로 뛰여나오며말햇습니다。

『그래一얼는 문열어라 떡만히 어더가지구와다一』

오누이는 그제야 어쩌지 그목소리가 그어머니의 목소리와 좀 다른것을 깨닷앗습니다。그래서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어머니가 입든 저고리와 치마틀입어서 어머니갓기는한데 얼골파손이 사못달름으로 오누이는 깜작 놀냇습니다。

『오빠一엄마얼골이 왜저러우?』

『글세말이다。이상하구나!』

오누이는 문박게서 들리지안토록 서로 가만가만히 속살거렷습니다。

흉물스러운 호랑이가 오누이의 엄마를 잡아먹고는 그옷을 주서입고 떡구레미를 들고 오누이의집을 차저가서문을 열어달라고 한것입니다。문을 열어주면 기여운 오누이 마저잡어먹을 작정으로……

그러치만 오누이는 그때에 벌어가지를 안헛습니다 그래서 문을열어주지안흐니까

『얘들아一왜밤 대추서껀만히어더왓는데 어서문을 열어야 느이들 주지一』

하구 호랑이는 능이되어서 문을 떨거리며 문을열라고 졸라대엿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면 애기들의 오좀싸는증

귀찬타고만생각못할맥낭한것 병의원인은여러가지

서리가 뽀이하케나린 이른아침一키를 둘러쓰고 이웃집에 소곰꾸러 가는통이라니一 오좀싸는 아히는 소곰꾸러보내는습관이엇지안습니까

날세가 산산해짐을 따러서아히들의 밤오좀싸기도 시작될것입니다 밤마다 이불속에서 그냥 오줌을싸는것은 정말기막히는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히들에게만 잇는것이 안이라 나히든 분이네중에도 잇습니다 밤으로 오줌을 싸는것은 일종의 병입니다

그원인은 잡재성척주파렬(潜在性脊柱破裂)이라하야 등사(脊柱骨)뼈의 뒤가 깨여진것지 그러치안흐면 방광(膀胱)의 조절하는 부분에 고장이생겨서 뇨도괄약근(尿道括約筋)이 느러진는때문입니다 이밖게도 어려서부터 몸을 습관으로 말미아마 일어나는수도잇습니다 몸에는 아모탈이 업는데 기피 잠들어서 자다가 야튼잠으로 옴겨 올때 꿈을 꾸면 오줌을 싸는수가잇습니다 그럼때는반듯이 잠을깨면 굼을 모조리 이저버리게됩니다

이것은 보통잠든지 두세시간쯤될때 잘일어나는중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시간을 잘 틈타서 이르키고 오줌을 누이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이러한 오줌싸기중에 걸린사람은대개가 신경질을가진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주위에잇는 사람들도 신경질인 사람이만습니다 따라서 밤오좀싸기와 기분과는 밀접한관게가 잇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사가튼것으로 천천히 고칠수잇습니다 어느의사의말에 의하면정신분석하적치료법(精神分析學的治療法)을 쓰면 잘낫는다는말도 잇는데 이치료법에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예방에는 저녁을 먹지안는지 수분을 될수잇는대로 적게섭취하던지 저녁후에는 절대로 음식물을 먹지안토록 하는동시에 밤과다리가 더웁도록 이불을 덥퍼저녁먹은후 두시간뒤에 잔는것이 조흡니다

정신이 흥분되면 오줌마랍이 느러갑니다 그러므로 아히들이 오줌을 쌋다해서 꾸짓는것은 조치못합니다 신경질인 부모一더구나 어머니의 태도가 어린아히들의 정신에 크나큰 영향을 가저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해들의 병은 위선어머니의 신경질부터 치료한다음에 하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속잘뱅이는 습기 잇는것은 절대로 입히지말도록 하고천천히 습관을 드리면 중중에 빠지지안는것은 꼿고치지는것입니다

그러나 밤마다 계속하야발증되는것은 암시적으로 고치도록하되 주사가튼것으로 효과를 올릴수잇습니다 이러케 주의하면 나히가 만허저서열서너살쯤되면 고처집니다

그러나 결흥할 년세의 녀자로서 이중세가잇는이는 대개 다른병이 잇는것을 이러야 합니다

례를들면 신장방광결해이나 방광렴가튼것에 걸려잇슬것입으로 이것을 치료하도록해야 합니다

극상품제물양복

여러분이 입고잇는 양복은양(羊)털로 짠것입니다 양털은호주(濠洲)에서 만히 납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는 색진과가튼 양이 만흠니다

『두루미』

두루미는 목이길다。
목만길드냐 아니야 수
동이도 길다。 수동이
만 길드냐 아니야 다
리도 길다 다리만 길
드냐 왜 날개쪽지도
길테。

([illegible] 남기훈)

中央保育學校主催
第八回
校內音樂大會
今夜 七時半 — 於府民館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Hechima Cream

더말할수업시白粉이잘먹고잘핀다

아모리
애를쓰고
研究하여
보아도—
마음드는
것은亦是
ヘチマクリーム
……이라는
것은絶對
로틀님이
아니다!

ヘチマクリーム (헤치마크림)

强力乳化粧裝置코로드·밀使用의超微粒子크림

30전·50전·70전·特製20전

發賣元 ヘチマコロン本舗 東京 天野源七商店

訓民正音頒布記念을압두고

正音反對派의上疏

● 方鍾鉉

여기에그題目만 써보면
一、梵字說
二、篆字說
三、[illegible]及小篆新帝文字模範說
四、八卦說
五、己說
六、音樂方面說
七、朝鮮哲學者著眼說
八、點劃說
九、窓門戶說

이들中에 아홉재인 門이나 戶에서 正音을 차자내인다는것은 퍽 재미잇는 이야기다 世宗께서、이 正音을 公布하시기까지에 苦心은 各文獻上에서 歷然히 나타남을 알거니와 이글을 짓기위하야 그文臣을 遼東方面에도 十數次 派遣도하고 中國使臣이 온때에도 여러번 問議한것이 分明하지마는 모두 다 別로 큰 所得이 이러타할것이 [illegible] 업슴으로 크게 失望하시든中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든 그끄테 안떡이셧드랍니다 그래서 至今까지 苦心하시든 困難한 問題는 이 문(門)에서 엇게도 解決이 되엇다는것입니다 문(門)에는 四角形도 잇고 十字形도 차즐수 잇고 또 圓도 잇다는것이니 [illegible]은 문고리에서 模範한것이라고 한다。이런 이야기를 엑카르트氏는 듯고 모아서 新說한것이니 이 起原說에 關한部分은 後日 다른機會에 細論하기로 할수밧게업고 世宗께서 이正音을 發布하실때에 모든 臣下가 다 贊成하야 助力한것이아니고 極力으로 反對한 文臣이 잇스니 大概 그理由를 말하면 事大為華에 큰罪된다는것이며 또 中[illegible] 文字라는것을 [illegible]에서 잇는것이니 [illegible]다가 될려고한다는것이며 [illegible]는 그래도 漢文字와 [illegible]이 잇스나 이正音은 全然 反對되다는것 여러가지 條件을 들어서 頒布의 不可를 말하엿다。

여기에 對하야 世宗께서 理由를 들어서 그臣下를 說服케하고 [illegible]까지하고서 이 正音을 이世上에 共布하셧다。

이제 그가운데에서 가장 顯著한것을 들어서 紹介하고저한나 世宗實錄一百三卷第二十三面에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의 上疏가 잇스니 이해는 世宗二十六年甲子요 달은 二月인데 庚子日이라고하엿스니 二月初하루가 辛巳이므로 庚子日이면 二十日이됨다 그러고보면 訓民正音이 [illegible] 甲子二月二十日에 崔萬理等이 上疏한것이다 또 集賢殿에는

世宗始設集賢殿[illegible]文學之士……
世祖命罷集賢殿……成[illegible]即位
復集賢殿復設弘文館……

또 世宗實錄卷七庚子三月十六日條에는
甲申新置集賢殿

또 世祖實錄卷四丙子六月六日條에는
甲辰 命罷集賢殿停經筵其所藏書册並付藝文奉之

그럼으로 今年이 바루 集賢殿을 罷한지 四百八十年 即八回甲이 되는것이다。그럼으로여기에 簡單히 集賢殿이 設置되든 때와 파하게되든때를 簡單히 말해두는것이다。

魯迅追悼文 (二)

李陸史

中國文學史上에남긴 그의 位置 『阿Q의 正傳』을 다읽고낫슬때 나는 아즉까지 阿Q의 運命이 걱정되여 못견듸겟다는고한 『로망·로-랑』의 말과가티 現代中國文學의 아버지인 魯迅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우리는 먼저 阿Q의 正傳을 理解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中國의 阿Q들은 벌서『로망·로-랑』으로하야금 그運命을 걱정할 必要는 업시되엿다 實로 수만흔 阿Q들은 벌서 自身들의 運命을 열어갈길을 魯迅에게서배웟다 그래서中國의 모든勤勞大衆들은 南京路의『아스팔트』가 自身들의 발미테 흔들리는것을 늣기며 施高塔路新邨의九號로그들이가것은 偉大한文豪의最後를 哀悼하는마음들은 黃浦灘의물결波濤와가티 밀려가고잇는것이다

그럼으로 阿Q時代를 考察하여보는데따라서 魯迅精神의 三段的變遷과아울러 現代中國文學의 發展過程을 알어보는것도그를追億하는意味에서 그다지 虛無한 일은아닐것이다。

中國에는 古來로 小說이라는 온言字라가 보는것과가튼 完全한藝術的形態는 存在하지못햇다 三國演義나 水滸誌가아니면 紅樓夢等이잇섯고 多少의傳記가 잇섯슬뿐으로서 一般敎養잇는집 子弟들은 科擧制度에 應試를바며 文語體의

…古…文만崇尙하고白話小說가튼것은俗人의할 일이라하야나치아는하든所謂文壇은唐宋八家와八股의混合體인桐城派와思綺堂과 袁隨園의流派들따라가는 四六駢體文과黃山谷을本崇으로하는 江西派等等이 當時正統派의文學으로서 誇張과 虛僞와 阿諛로서 古典文學을 模倣한데지나지못하엿스며 새로운社會를 創生할何等의 힘도가지지못한것은 미루어알기도 어렵지안흔 寡國氣分에 中國文學史上에 燦然한烽火가 일어난것은一九一五年 雜誌『新青年』의 創刊이그것이다

이것이처음發刊되자 當時『아메리카』에잇든胡適之博士는『文學改良芻議』라는『文學革命論』을 一九一七年新年號에 揭載하야陳獨秀가 이에贊意를表하고 北京大學을 中心으로한 進步的인敎授들이 合流하게되자 從來의古文家들은 이運動을防害코저 가진 野卑한 政治的手段을 써도보앗스나 一九一八年四月號에 魯迅의『狂人日記』란 白話小說이

…發…表되엿슬때는 文學革命運動은 實踐의 巨大步武를옴기게되고 벌서古文家들은 그醜態한꼬리를 감추지 안흐면안되엿다는것은 그後얼마뒤에 魯迅이廣東에갓슬때에 어떠興奮한靑年은 그를마지하는文章속에『狂人日記』를 처음읽엇슬때 文學이란것이 무엇인지몰랏든나는 차차읽어나려가면서異常한興奮을 늣겻다 그래서 동무들만나기만하면 곳붓들고말하기를——中國의文學은 이제바야흐로 한時代를 짓고잇다 그대는『狂人日記』를 읽어보앗는가 또거리를거러가면 길가는사람이라도붓들고 내意見을發表하리라고생각한적도잇섯다……(魯迅在廣東)

이問題의小說『狂人日記』의內容은 한개妄想狂의 日記體의小說로서 이主人公은 實로大膽하게도明確하게 封建的인 中國舊社會의 惡弊를痛罵한다 自己의 이웃사람은 勿論말할것도업고 特히自己家庭을 激烈히 攻擊하는것이다 家庭—家族制度라는것이 中國封建社會의 社會的單位로서 一般에얼마나한 害毒을끼처왓든가。封建的家族制度는 固型化한 儒敎流의

…宗…法社會觀念下에 當然히崩壞되여야할것이면서 崩壞되지못하고 近代的社會의成長에 가장根本的인 障碍로되여잇는 낡은道德과 因襲을 餘地업시 痛罵햇다、이에『狂人日記』中에 한節을 抄하면『나는 歷史를 뒤적거려 보앗다 歷史란건 어느時代에나 仁義道德이란몃줄로 치덕치덕씨여저잇섯다 나는 밤잠도안자고 뒹굴뒹굴굴러가며 생각하여보앗스나 겨우글자와 글자사이에서『사람을먹는다』는 몃자가쓰여잇섯슬뿐이엿다』 이가티醜惡한 社會面을暴露한 다음 오는時代의建設은 젊은사람들의손에 맛겨저야한다는것을 暗示하면서 이小說의一節은『어린이를救하자』는 말로서끗을막엇다。實로이한말은 當時의『어린이』인 中國靑年들에게는 思想的으로는『暴彈宣言』以上으로 衝擊을주엇스며이러한作品이 白話로쓰여지는데 따라 文學革命이 完全히勝利의 凱歌를 부르게된 功績도 太半은魯迅에 돌려야하는것이다。

漢詩募集

題…重陽
押…香
限十一月十日
(薄謝進呈)

니-체와現代文化

―그의誕生日을記念하야―

⑧ 金亨俊

그가살어온 歷史의 重壓을느끼면서도 人間은 過去의 記憶에依한 連鎖가운데서 自己의同一性을 確認하며 自己의 行爲의 根據를 가지는것이다。그러나 人間이 만일 歷史에만 依存한다면 그는歷史的知識의 過剩때문에 窒息할것이다。니-체는 歷史的知識만을 가진 當時學者들을『敎養잇는俗人』이라하야 嘲笑햇다 우리가 歷史的으로만 늣긴다면 우리는 現在보담도 항상 過去에 드리가 살게될것이다。그러므로 歷史的重壓으로 버서지안코는 人間은 새로운 發展을 바랄수업는것이다。『歷史的인것과 非歷史的인것은 個人 또는 民族 人類의 健康을爲하야 極히 必要하다』그러므로 人間은 또한『非歷史的으로 늣기는 能力』을가지지안흐면 안된다。여기서 人間은 忘却的動物 즉 歷史的인同時에 非歷史的인 動物인것이다 人間은 記憶에 依하야 過去를 가지면서도 忘却能力을 通하야 過去및 現在를 評價할수잇게되는것이다。人間은『本來價値評價的動物』인것이다。

이러한 人間觀의우에서 그는 自己의 理想하는 偉大한 人間을 自由思想家 즉歷史的重壓을 느끼면서도 모든事物은 科學的으로 評價할수잇는 明朗한 思想家에서 求한것이다。自由思想家는 從來의 慣習이나 權威에 盲從하며 從來의 價値評價의規準에 얽매여서는 안된다。어대까지나自由스러운立場에서 現實을 實情그대로 認識하며 評價하지안흐면안된다。그는 이러한 個人的孤高의 立場에서 宗敎道德 一切文化現象을 거처서 批判하며否定하며 改價하려한것이다。

그러나 自由思想家도 實際에 잇서는 藝術的天才와가티 偉大한 人間이 못된다는것을 그는 또한 自覺하게되엿다。自由思想家는 現實을 科學的으로 認識하려한다。그러나 純粹하게 또는 自由로서 認識키우하야는自己의 感情과 意志를 抑壓하지 안흐면 안된다。그러나 우리가 感情과 意志를 抑壓하고서 果然 偉大한 生을 차즐수 잇슬가? 勿論 意志와 感情을 除外하는限에서 우리는 生의肯定을 어들수잇슬것이다。그러나 이러케 肯定된 生이 반드시 偉大한 生은 아닐것이다 차라리 感情과 意志가 한대어울려진 人間만이 生을 積極的으로 肯定하는 創造的人間일것이다。여기서 그는 다시 第三期의『超人』思想에로 轉向하게된것이다。

×

니-체가 처음부터 理想하는바 偉大한人間은 生을 積極的으로 肯定하며 創造하는 듸오니소스的인것이엿다。그러나 藝術的天才도 自由思想家도 거긔에 適當치 못햇다。여기서 最後로 發見한것이『超人』이엿다。超人도 最初의 悲劇的人間과가티 듸오니소스의 象徵이다。그러나 超人은 悲劇的人間과가티 아포로的假象世界에 逃避함으로서 虛僞的인 生을 肯定하려는것이 아니고 一切의 價値를 變換시키며 人間을 스스로 超克함으로서 偉大한 生을 積極的으로 肯定하려는것이다。『人間은 超克될 어떤것이다』『猿猴으로부터 人間에나온것과가티 人間으로부터 超人에 나가지안흐면안된다。超人의 눈으로본人間은 人間의눈에 빗치운 猿猴와 가튼것이다。우리들의問題는 어찌하면 人間이保守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면 人間을 超克하느냐?이다 小人的인 女性的인 奴隷的인 卑劣한 人間現實을 超克하는것만이 偉大한生을 肯定하는것이며 創造하는 所以이다。『創造的인 人間만이 人間에게 目標를주며그들에게 未來를 暴示한다。創造的人間만이 처음으로 조커나 나쁘거나 創造를 無限하는것이다』 니-체는 짜라두스트라의 입을빌어 이러한『超人』을 說敎한다。그러나 그것은 모든人間 즉俗衆에게 하는것이아니라 일은바 高貴한 人間에게가르키는것이다

漢詩

題…白頭山
押…峯
桐岡 考選

佳作之一

京城府嘉會町一一八 權寧浩

雄鎮遐陲各要衝
龍盤虎踞萬年峰
有池分作三江大
劃界馳爲一國宗
地接天坪雲漠漠
路迷雪嶺樹重重
試看今日新興誌
五嶽潛低獨顯峯

讀者社交室

▲全南長興S生에게答함 九月二十二日附貴下의普文試驗準備書를廉價로讓渡하신다하오나 小生은左記書籍을 買讀코저하오니價格은左記住所로 即接通知하여주십시요(赤內長正 古川喜九郞著)普文受驗提要 (星野武雄著)普文試驗答案集 (萩原彦三著)朝鮮行政法
全南康津邑山二精米所內 韓龍洙

▲將次우리들의士審는 滿洲라고웨치지안습니까 生은餘暇잇는대로家庭에서 中國語를배우고저합니다 讀者諸賢中 中國語獨習冊子(中古品도無妨하오니)買受하겟습니다)販賣所를 아시는분은冊名、定價、發行所等을明記하와本欄을利用하와알려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그럼바후 探金生

▲九月三十日付本紙上에 記載한某農校卒業後 某高普校를卒業한當年二十一歲의 求職男에게傳함 貴下의現住가京城이라며는即接訪問하야주시요 訪問住所는府內新孔德町十五番地 金昌烈게로午後六時로부터七八時까지 訪問하시기바랍니다 本人面談時에相議事가有합니다
京城府新孔德町十五番地 金昌烈

▲九月二十六日附 社交室三番求職女性의게 答함 生은現在日本雜貨商을하고잇사오나 店員及書役生을 求하옵든바 알참貴求職性을보고 玆以仰告하오니 貴住所를 社交室에明記하시압 遠近을不願하고 隨意대로相議하겟습니다
慶北一店主

暮學館筆記 (八)

朴赫居世와閼英

蒼匡學人

그리고 始祖의妃 閼英에關한 記事를보면 始祖五年春正月에 龍이 閼英井에나타나서 右脇으로 女兒를誕生하엿는데 老嫗가보고 異常히녀여서 收養하면서 井名으로 名을지엇고 長成하야 德容이잇스매始祖가듯고 納하야 妃를삼엇는데 賢行이잇서서 內助를잘하엿다 時人이 二聖이라云하엿다

龍女를 娶하엿다는것은 저檀君이 西河神河伯의 女를 娶하엿다는말과 同調인 荒誕의傳說에 不過한것이니 辨說할것도업는問題요 그의生年과 結婚 갓는그名字의 讀法에就하야 말할것이잇다

朴始祖가 十三歲에 即位하엿스니 在位五年이면 十七歲가되는데 이해에 閼英이 誕生하엿스면 始祖보다 十六歲가아래다 그런데 始祖十七年六部를巡撫하야 農桑을勸督할때에 妃閼英이 從行하엿다하니 이해는 始祖의나히 二十九歲요 閼英의나히 겨우十三歲다 이약閼王의地位로서『二十九歲』에 비로소 納妃를하엿다는것도 事理에 當치안타 하려니와 十三歲의 幼女로서 어느틈에 王妃가되여巡幸에 따러다녓다면 그것은 異라는것보다 妖에近한일이라하겟다

그런데 三國遺事에按하면赫居世와 閼英은 同年生이다即『前漢地節元年三月朔에 誕生하야 十三歲되는 五鳳元年에 赫居世는 王이되고閼英은 王妃가되엿다고하엿다 이제本紀와 遺事와를 綜合하여보면 대개 閼英이 赫居世와同年生으로 十三歲되든해 六部會議로서 赫居世를 王位에推戴하는同時에 閼英을王妃감으로 定賣하여두엇다가 始祖五年即男女共히 十七歲되든해에 結婚을한것인데 本紀에이結婚記事에부처서 誕生의事를 追敍하엿다는것이 그와가티 錯誤된것으로 推測된다

그리고 閼英의閼은音이『연』으로도나가고『알』로도나가는것이니 여기는 무엇으로 읽을것을 決定해야하겟는데 이것은 三國遺事閼英井註에『一作娥利英井』이라하엿스니 娥利의 合音이『알』이라 여기에依하야 閼의音은『알』로읽는것이 올흘것이다

끄트로 二聖의稱에對하야 한번檢討하여보자 우에말한바와가티 赫居世와 閼英을 二聖이라稱하엿는데 閼英의 賢行은 어떠하엿든지 始祖十七年에 王을從하야 農桑을勸督하엿다는것外에는 傳한것이업스니 遺憾이라하겟고 始祖에關한記錄으로는 그가 中國에낫서라면 所謂堯舜의治에 못지안흔文獻의남은것스리라고推測되다 例를들면 樂浪人이 侵入하다가 夜에戶를閉하지안코 露積이野에被한것을보고 有道의國을侵犯하는것이 羞恥라하고 가지라하야 스스로前退하엿다는말이라든지 瓠公이 馬韓王의 詰問에對答하기를 我國은二聖이 肇興하므로부터 人民이 [illegible] 가 充實하고 辰韓遺民으로부터 卞韓、樂浪、倭人이 모다 畏懷한다는말이라든지 東沃沮가 良馬二百匹을 보내면서 南韓에 聖人이出하엿다는말을듯고드리다고한말이라든지 始祖가 馬韓王이 薨하자 或이 [illegible] 征討하기를 權하엿스나 그는『人의災를 幸으로녀이는것은不仁이다』하고 興兵치안코弔慰하엿다는事實 한가지로써 그의德性을 짐작할수잇다 저百濟始祖가 馬韓의 新弱한것을보고 [illegible] 取하는이만 못하다』하고 潛襲하야 取한데比하면 實로天壤의 差가잇는것이니 二聖의稱을 어든것이偶然한일이 아니라하겟다 그런데 唐玄宗이 新羅聖德王에게 보낸 詔書에『二明慶洽三韓善隣』의句가 잇는데 二明은二聖의 稱號으로 볼것이니 [illegible]하는 自慢心에서 明字로써代用하엿슨모양이다

新羅의建元

新羅本紀에按하면 法興王二十三年에 비로소年號를稱하되 建元元年이라하엿다하고

法興의後를嗣한 眞興王은 即位十二年에가서 開國으로改元하엿다가 二十九年(即位年數、下는倣此)에가서 大昌으로 改元하엿다가 三十三年에가서 鴻濟로改元하고

眞興의後를嗣한 眞智王은改元한일이업고

眞智의後를嗣한 眞平王은即位第六年에가서 建福으로改元하고

眞平의 後를嗣한 善德王은 即位第三年에가서 仁平으로改元하고

善德의後를嗣한 眞德王은即位元年에 太和로改元하고 同二年에는 [illegible] 四年부터 唐의永徽를使用하엿다

그런데 法興王이 비로소年號를稱한것은 中國의 制度를 採用한것이오 한번採用한以上엔 無故히 中止할까닭이업는것인데 어찌하야 眞智王朝에는 全然改元한일이 업슬뿐아니라 眞興、眞平、善德三朝는 即位年에 하지안코 數年乃至十餘年을 經過한後에 改元을하엿는가 眞德이 即位元年에 改元한것을보면 眞興、眞智、眞平、善德도 반드시 그리하엿슬것이니 대개先王이 創始한 制度를 그러케 中斷할理가업슬뿐아니라 眞德王朝에 唐의 援兵을엇기에 汲汲한때임에도 不拘하고 年號問題로唐帝의詰問을受한後 오히려 二年만에야 唐의年號를 行使한것을보면 年號에對한 觀念이 얼마나 自剛하엿든것도 알수잇는것이므로 新羅의年號는 後世에傳치못하고 遺漏된것이잇슴을 짐작할수잇다

카메라의가을

가을이 매양 哀愁의 季節로 읊조려지는것은 대개 이러한 畵面이 恩寵을 밧는때문인가보다。향기도 기름끼도 다 살어진 이 淸楚한 淡粧을 對할때 살찌고 빗나든 그옛날은 얼마나 속된 榮華이든가? 이러한 가벼운 風景이 우리의 心琴에 부다칠때마다 또한 무슨 善變이 생기는것도 이상한일이다。

連載野談

布袋記 (一四)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저죽기소원(三)

그 문서궤안에는 가대문서한장, 종문서 두장이외에 다팔어먹고 남은 지갈밧은서 두어장이 들어잇섯다.

리선전관은 그 문서를 따루따루 찻겨 노흔뒤에 그 부인을 향하야

「부인! 내처지에 종이란것이 당치아니한것, 전생에 죄가만흔 판계로 팔자가 이지경이어니 만분의 하나라도 남에게 조흔일을하야 전생의 지극한 죄를 사하는것이 조흘듯. 그럼으로 이종문서 두장은 불을 살려 속양을 시켜주려하오」

하고 안해의 의향을 물엇다.

「나으리 의향이 그러시다면 생각대로하실것이 아니게 아니라 그만큼 조흔일이 어듸잇것이야용」

하고 그 안해도 다른 의향을 말하지아니하얏다.

리선전관은 두종을 불러 속양해 주는뜻을 일으고 그 종문서는 즉석에서 불에 태워버렷다.

두종은 뜻아닌 일에 대하야 감격한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리선전관과 노주(奴主)의 관계가끈치는것을 섭섭히 생각하얏다.

리선전관이 두종을 속양시킨뒤에 다시 그부인을 향하야

「부인! 우리내외의 압일이갈수록 험하거나 이지경으로써 종곳 지낸다하면 두몸이 죽고저하나 반듯이 죽을땅이업슬것. 아마도 벼슬을하여야할 놋흔 벼슬길을 차저보아야할것이 이 집만 냉기고 남어지는 모두 털어 팔아서 류경(留京)하는 비용을 맨들어그 돈을 쓰는동안에 천행으로써 뜻과가티 성공이되면 사는길이 열릴것이오. 만일 그러치 안흐면 죽는길로 한시바삐가는것이 오히려 복되리라」

하며 최후의 결심한바를 한숨석긴 음성으로써 설파하얏다.

그안해도 목전에 당한 사정에 비상한 행동을 취할 시기임을 깨달은것뿐아니라 리선전관이 낙향이후 거듭되는 곤궁이 날마다 [illegible] 헤어나지못한하나, 생각을 가지고엣는것이 오직[illegible] 갈이 먹힌것을 한탄하는것인을 벌서부터 기뻐 질작하얏다.

그래서 리선전관의 의향을따라 욱 존중히 생각하며 그 뜻을 쾌히 허락하얏다.

이에 리선전관은 당일로 그 남은 전답을 둘둘 혈어 팔으니 그갑시 겨우사백양이엿다.

그래서 그 사백양중에 삼백양은 노자돈으로 떼어노코 남어지백양을 그 안해에게 주어 살어나가기를 부탁하얏다.

이에 즉장망혜로 경성을 향하야 떠날새 그부인을 향하야 서글픈 괴색으로써,

「예로부터 남아가 뜻을 두고 문밧게 나갓다가 그 뜻을일우지못하는때는 죽고 도라오지아니한다는 말이잇거니 오늘날 내가 밧길을 내놋는이길이 정히 그런뜻을 가지것부인은 이몸을 이 자리에서부러 이저버리고 그 구구한 여생을 지랑하여 보전하시요. 내뜻을 일우는때는 재생한사람의 기쁨으로 만날것.」

하며 영영 리별의 눈물을 뿌리엿다.

「나으리!」 큰일을 마음놋코 떠나지는 길이어늘 어찌 안녀자의 약한 마음을 먹으시나잇까. 속히 뜻을 일우시고 바가히 뵈입기를 축수할뿐이외다.」

하며 그 안해는 조흔 말로써 리선전관의 억색한 마음을 위로하나 속으로는 자연 섭섭가 허우룩하얏다.

리선전관이 그 부인과 손을 난우고 남쪽을 향하야 발을내드될지음에 그 속양을 바든두종이 역시 리선전관의 뒤를딸아서며,

「소인등이 하해가튼 덕택을입사와 속양이되엇삽거니 어찌 머나먼길의 행차를 뫼시지아니하오릿까!」

하며 생사간에 경성까지 올라가서 전날과 가티 거행하기를 청하얏다.

리선전관은 그 기특한 뜻을 막기가 어려움으로 두종이 뒤에 따르는것을 그대로 허락하야 길동무를 삼엇다.

그럭, 저럭 뜻기픈 거룽으로써 어느날 벽제역(碧蹄驛)까지 일으러 사처를 정하얏다.

이때 머리에는 일바기지를 쓰고 몸에는 청창의에 남전대를 띄인 잘수(奎顏)한 사람이 호귀잇게 들어서 리선전관을 몸시 업수여기는 못한 눈초리로써 바라보앗다.

폭쓰社의『사랑을 가지고 메리―에게』의撮映時監督과演出者가 歡談하는것 右로부터 존·크롬웰 『마―나·로이』 워―나·바스타―녹 아이안·헌터―」

藝苑消息

演協創立公演 『守錢奴』配役

市內臥龍町에잇는 朝鮮演劇協會의創立公演은 旣報한바와가티 今十月二十四日부터 二十五日兩日間 府民館에서 開演한다는데 레퍼토리는다음과갓다

몰리엘作 演協文藝部譯 『守錢奴』 全五幕

配役

알파곤	李化三
클레안트	尹北洋
바렐	朴學
엘리―스	李白姬
마리안누	韓順子
푸로신느	姜貞愛
안세룸	柳邦
자크	姜洋洋
라·푸레쉬	朴東和
다 크로―도	宋英愛
푸라다 보안수	鄭紅波
警官	金一松
書記	金逸
演出	吳楨民
助手	許一
舞台監督	白友三
裝置	金一影
照明	吳英
音樂	朴永根

映畫界消息

蘇聯의映畫界

最近에 到着한外報에 依하야 사베―트露西亞의 映畫界近況을 아러보면

『모스필무』綜合應用線漫畫스타디오는 部長『아·푸토―시코』指導下에 세個의 全着彩色漫畫로―키를 完成하얏다

『여호와이리』―이것은 傳說에서 取材한 『푸토―시코』及『아·와니치킹』의 脚色에 依하야 『에스·모스코―키―린』女史가 監督하얏다 에스女史는 第一回映畫祭때에 新걸리―버―의 人形製作者로서 表彰바든 한사람이다

『遺言』―이것은 一種의 映畫短篇小說로서 宗敎界의 腐敗僞善을 剔抉하랴는것으로서 伊太利의 古代通話로부터 史的材料를 取한것이다

主人公은 『우바리지노』라는 僧院長 愛犬의죽엄을 愛惜히 생각하야 人間同樣의 모든 禮式을 갓추어 敎徒의 墓地에 埋葬하얏다 이것을들은 主敎는 크게怒하야 이院長의 冒瀆行爲를 嚴罰하라하얏다 院長은 救急의 對策으로 大司敎에게『愛犬의遺言』이라하야 莫大한金額을 捧呈하얏다 이것이 効果를내여 院長은 罰을 免하고 愛犬은 聖者表中에 記入되엿다는 內容인데 監督은 『이·스크류―몬』와 『에푸·크라이ㄴ』 共同作이다

『漁夫와 고기이야기』― 이것은 文豪『푸―쉬킨』의이야기로서 今年가을 그의記念祭의記念映畫다 監督은 『파―레프』의 民衆派畫家가 總動員되엿고 指揮는『프토―시코』監督『아·와니치킹』及『에프·페오든·[illegible]』等이 마럿다 오래동안 消息이끈허젓든『크십』의 作者『토―린』은 지극아젤푸티의 『바―쿠』撮影所에서 長篇發聲映畫 『[illegible]術音響 바―쿠의同志들』이란 映畫를 製作中인데 明年二月에야 完成되리라한다

文豪 『푸―쉬킨』百年祭記念映畫의 『도―브로프스키―』가 『레닌필무』에서 完成되엿다 『푸―쉬킨』의同名小說을『카·데르지빈』이 脚色하고 歷史映畫의第一人者『아·이와노프스키』가監督하얏다

監督『이와노프스키』는 아는바와가티 『十二月』『유―드시카·고로비요프』等의 名作을 보이여 준사람이며 撮影은『베·쉬비르―세프』作曲은『아사피에프』가 마랏다 이映畫는『푸―쉬킨』의 浪漫主義를 高調한 特異의冒險小說을原作과 조곰도 틀림이업시 映畫化시키고 그當時의 紊亂한地主文化의 레아리티를 畫面에 나타내엿다

그리고 唐演俳優들은 特히모스코바藝術座의 名優들이 出演하여잇다

이映畫는 實로『푸―쉬킨』百年祭記念映畫中의 白眉라고할수잇다

二十三日(金曜)

◇午後六時童謠齊唱과獨唱 一、산길齊唱 二、돌다리同 三、나무닙배獨唱 鄭弼女 四、집신짝齊唱 五、퐁당퐁당同 六、참새의合齊唱 金漢圭 七、참흙으난밤獨唱 金漢圭 八、고초먹고맴맴 啓明學院兒童 伴奏 鄭仁基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常識講演 『히스테리이야기』 安鍾一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名唱의저녁

◇同八時 春香傳 一、廣寒樓景槪(宋) 二、新官到任(李) 三、御使出道(金) 宋萬甲 李東伯 金昌龍 鼓手 韓成俊

◇同一〇時〇分 大連 一킬로放送實施祝賀放送(京城으로부터)

歌謠曲

一、巷口를떠나서(張萬英作詞)(草笛道明作曲)

二、에헤라靑春 (李鐵帆作詞)(李基英 同)

三、고 개(樂宗煥作詞)(揷一春作曲)

四、꼿노래 (朴英鎬作詞)(李基英 同)

五、失戀曲(朴英鎬作詞)(李基英 曲)

[illegible] 伴奏 DK管絃樂團

第一放送

◇午後六時(東)이야기 苦米地貫

◇同七時三〇分 講演 宮永文一

◇同八時 義太夫 鶴澤玉系

◇同八時三〇分(東)管絃樂

◇同九時(東)講談 桃川燕林

二十四日(土曜)

◇午後〇時五分(東) 輕音樂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어린이에게잇기쉬운眼病 醫學博士 韓東[illegible]

◇同一時四〇分 敎育에關한勅語[illegible]下附二十週年記念式實況 ―府民館에서―

◇同六時 어린이科學 『별이야기(一)』 鞠採奭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徐椿

◇同七時三〇分 講演 『生活內容과音樂』 李允宰

◇同八時 歌曲 一、羽調平擧 二、羽調數大葉 三、平界樂 四、界樂 五、編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배다라기 三、자진난봉가 四、난봉가 [illegible]

◇同九時 古談 『重陽의이야기』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午後〇時〇五分 (東)輕音樂

◇同六時 (大)童話劇

◇同七時四五分 (大)넷날이야기

◇同八時 (大)라디오·드라마

◇同八時一七分 (大)獨唱과合唱

◇八時五〇分 (大)라디오風景

◇同九時 時事解說

二十五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錦國名山 二、唱劇調 水宮歌 金演洙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어린이映畫이야기 成東鎬

◇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洋樂 朝鮮日報社主催全朝鮮音樂競演會入賞者

◇同八時 執杖歌外 一、執杖歌 二、달거리 三、小春香歌 四、平壤歌 申花中仙

◇同八時三〇分 脚本朗讀 『第三者』 宋在晉

◇同九時 音律 一、鄕黨交奏 二、靑邑

◇同一〇時 管絃交換放送(東京城)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七時四十一分 農村講座

◇午後一時 (東)野球 東京大學리그戰

◇午後六時 (大)音樂物語 大阪放送童話協會

◇同八時 (東)新作의저녁 物語及獨唱

◇同八時四五分 (東)宮薗節

◇同八時五十分 (東)小唄

◇同九時 (東)室內樂 鈴木칼레드

曆

十月廿四日(土) 陰丙戌九月大(初十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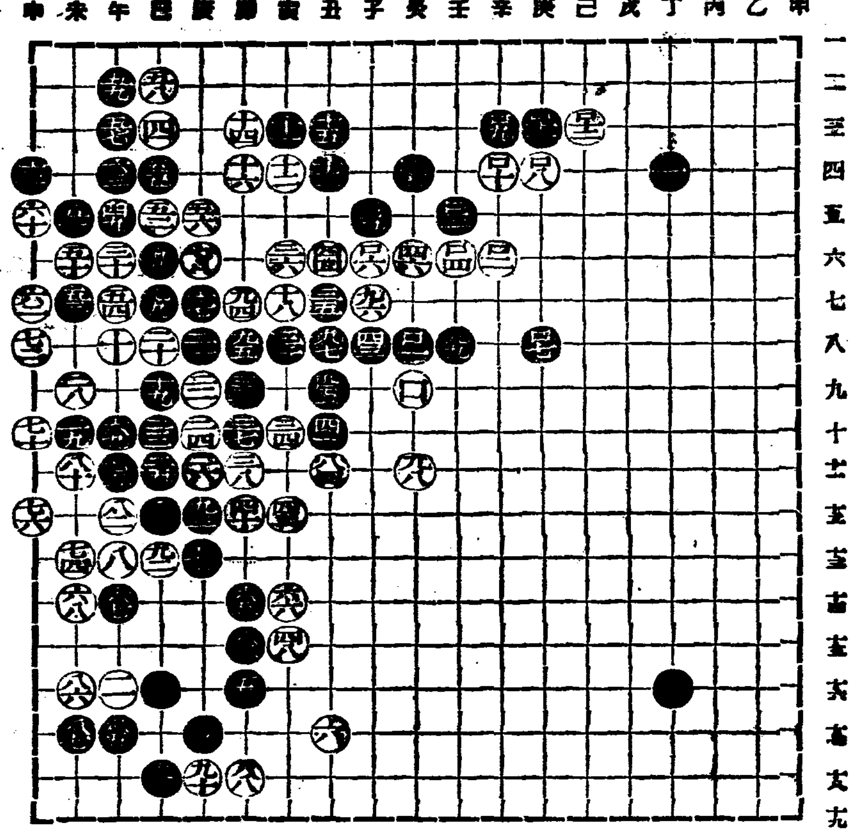
[illegibl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 [illegible] 濂

黑先 李 [illegible] 性



●九七 丑의八
○九八 癸의十一
●九九 壬의八
○一〇〇 癸의九
●一〇一 癸의八
○一〇二 辛의六
●一〇三 壬의五
○一〇四 壬의六
●一〇五 子의五
○一〇六 子의六
●一〇七 庚의八
○一〇八 庚의四
●一〇九 辛의三
○一一〇 辛의四
●一一一 庚의三
○一一二 己의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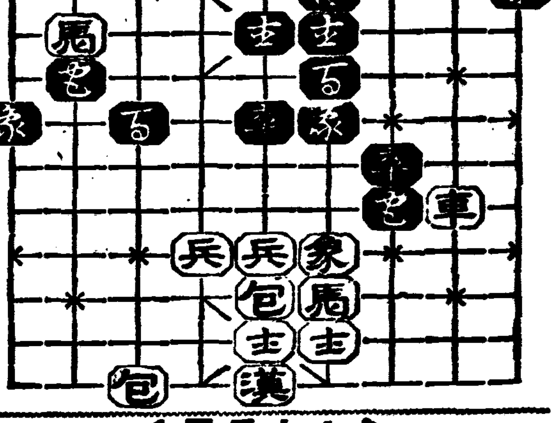
蔡極文氏評日 黑西角求生에 拙棋 一矢附 中央進出이 本局을 [illegible] 此所謂棋不固枝不茂 [illegible] 又是 [illegible] 現今勢力은 白便이 弱强 [illegible] 하노라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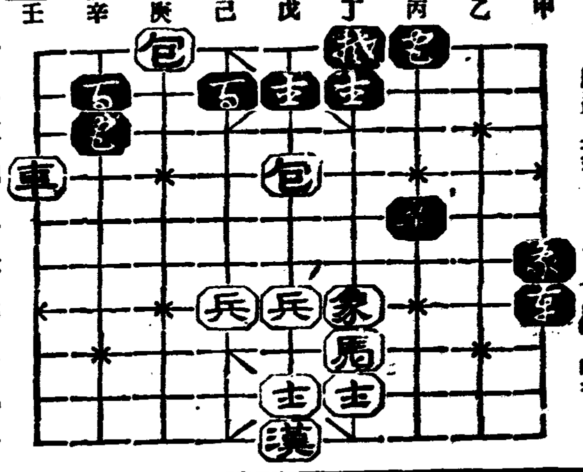
漢先手 李在鳳 楚 盧世麟

◀五十手圖▶



庚七包―庚一
丙六包―丙一
乙六車―癸六
丁三象―己五
庚六車―壬六

◀六十手圖▶



庚四馬―辛二打馬
壬六車―壬四打兵
甲一包―甲七
戊八包―戊四打卒
丁二士―甲六

泄瀉.腹痛.胃腸加答兒의速治良劑

健胃固腸丸

泄瀉腹痛 胃腸疾患에

一、本劑는 [illegible]
二、[illegible]

藥價 廿錢 卅錢 五十錢 一圓 二圓 三圓 五圓 十圓

小兒에게는專門의小兒固腸丸이有함

服用하기쉽고便利한 健胃固腸錠

泄瀉腹痛에 一回三錠
胃腸衰弱에 一回一錠

錠劑의藥價改定
價格半減에相當한
內容增量을斷行한

新藥價
金參拾錢(舊十二錠入)을二十一錠入
金五拾錢(舊二十一錠入)을四十八錠入
金壹圓(舊四十八錠入)을百二十錠入
金參圓(舊二百錠入)을五百錠入

大阪市東區伏見町
合資會社 谷回春堂
振替大阪一七〇番

한번써서玉가튼살결!

牛乳石鹼

우유비누

自然의健康美를 保持하고저함에는 비누의品質과作用에充分한 理解를갖고、優良한비누의 選定이必要하다

No. S 10

本舖·大阪 共進舍石鹼株式會社

京城新社 [illegible] 第三十六回大公開 大衆料金 拾錢均一
天下無雙怪傑 兒雷也
大都映畫時代劇部超特作 原作 有田彰夫 監督 石山稔 剛部 九州男主演
米國マスコット映畫[illegible]日本版 原作 アル・マーチン シャーマン・ロー
監督 デーヴ・ハワード 曉の爆擊 ベン・ライオン主演
大都映畫現代劇超特作 原作 菊池幽芳 監督 吉村操 孔姉妹 琴糸路・佐久間妙子主演
永樂町 電話(本)三五三番 中央館

十月二十二日부터本日까지大公開
朝鮮名畫突然上映 每日三回晝夜興行上映時間 一回正午十二時부터 二回開映三回七時三十分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椅子席二十五錢
映畫時代社超特作品 朝鮮日報連載小說의映畫化!! 原作脚色安夕影氏 監督朴基采氏
處女無春 風前半上映
여기에나오는사람들 李慶善氏 朴胍松氏 金寅圭氏 卜惠淑女史 文藝峰孃 金一海氏
松竹下加茂特作品『옴사몬드版』 新人大會根辰夫氏監督 男の唄やくさの掟 主演 高田浩吉氏 結城一郞氏 光川京子
鐘路五丁目 電光一七三番 第一劇場

◆劇團豪華船公演◆ 十月十九日부터晝夜
一、悲劇 崔獨鵑 作 虛榮地獄 五幕
虛榮은人間을그르친다 虛榮속에서헤맬때까지天上에오른듯하다그러나虛榮의꿈이깰때그는地獄잇는것을깨닷는다 愛順은그義妹仁順의地位를빼아서男爵의令孃이되엿다 그러나그가그의사랑하는男子의칼끄테사라지기까지에는우리에게주는바數만흔敎訓이오는눈물겨운이약이다
南宮春 作 喜劇 將棋狂受難時代 一幕 說明을要치안는若笑爆笑의大喜劇
三、鄭泰旦 脚色 오페렛타쇼―
스타가될때까지 四景 朝鮮에서처음보는오페렛타―이다劇과노래가어우러지고劇과音樂이잇드러질제 潑剌明朗한맛이잇고 새로운形式의裝置는다만首肯感服할뿐이다華客諸位의希望에依하야 今週에또한번再吟味機會를드린다
西大門町 電話(光)[illegible] 東洋劇場

廿一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半午後一時半六時廿分
◆獨逸帝國테젠스필름超特作品 알터―트맨監督
血の敵、
世上의모―든家庭의責任者또는敎育者젊은男女들에게밧치는問題作 로、靑春을保護하자人類의敵性病을撲滅하여라!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몬데카르로의銀行을亡치는사람 主演 [illegible]
一秒間八百萬法大金이오고가는、가막히는映畫、콜맨氏最近의名技에醉하라!
◆新興키네마超特作品 久米正雄原作 如月敏脚色 立松晃若葉馨 主演 寂光愛
團成社

十月二十一日封切 二十五日迄五日間
パラマウント新作映畫 『メキシコGメン』
女 民 (をんなわな) ガートルード・マケル ◆ジョージ・ラフイ主演 ×××××
獨乙プレゼンス映畫 血の敵 ×××××× ワルター・ルットマン監督・問題の性病映畫遂に公開の機至る。若人よ見逃す勿れ……。
PCLオルトーキー 放浪記 ××××× 夏川靜江主演映畫 晝夜三回連續入替無シ 大人五〇錢學生三〇錢
若草映画劇場 [illegible]

廿九日落成式이擧行될
新羅眞興王北省碑閣

【咸興】 신라 제이십사대에 빛나는 진흥대왕(眞興大王)은 사상(史上)에 일흥난현군이라 대왕이 북한산과 옥저구지(沃沮舊地)를 순행하엿다는 사적기록도 잇슴은외라 그흔적을 말하는비석이 오늘날까지 전하여오는것이 여러곳잇스니 창녕말흘산(昌寧末屹山)한성북한산(漢城北漢山) 함흥황초령(咸興黃草嶺)등지에잇는석각이 그것이라 그러나 당 시의국계(國界)가 확실치못하야 학자간에만흔 의혹을가지게되니 김부식의삼국사(金富軾三國史)에는 신라와 북방경계를비열홀(比列忽)이라 하엿스니이는 지금의안변(安邊)이라 이것이사실이라면 국경을 넘어이백리를 상거한 북방 함흥 황초령에잇는비석은 자연 의문에 속하게 될수밧게 업는것이라 이에대하야 학자들이 그진가를 판정치못하고 의혹을 가지고 내려왓든것이다 그런데 이정여면의 사적 의혹을타파할 희귀한 사적중보(重寶)가 나타낫스니그 것이죽 지금하는 리원군 마운령운봉상(摩雲嶺雲峰上)에서 발견된 진흥왕 북성비(眞興王北省碑)이다

[illegible] 이비를 [illegible]겨되지 당시총독부에서는 이것을 경성박물관에 옴기라고명령까지주어엇다가 본궁유지들의 고저보존의 열정과강경한 진정으로 오늘의 비각락성식을 보게된것인데 전면에십오자 후면에 구십구자 합계백삼십사자에 자획이 파손된것이 삼십자가량된다 육조체(六朝體)를 표현한데에서 [illegible]와정교(精巧)를 다한조각의미는 도저히 타의모작(模作)을허치안는 신라예술의 정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진품이다 이 천년예술비안에 선인(先人)을 대하듯이 공손히 읍하고서니 그영풍이백(英風偉魄)이 오히려 살아잇서 고왕금래사를 무언히 말하는듯 무량한감개를 금치못하는것이잇섯다 리원고적보존회는 이 동기론 성의(誠意)를 긔념하기 위하야 가진정성과 힘을 다하야 만반의준비를 진행하는동시 전선으로다수한 유지의 참석을 바라며 특히 당일 래객의 편의를 도하기위하야 군선역(群仙驛)에서부터 당지까지는 자동차로 연락하게되엿다한다

★

耕地面積增加에反比
自作面積은激減
反面에小作地는五萬町步增
咸南의農土消長面貌

【咸興】 최근에 갑작이급한 발전과정을 밟고잇는 함남도는외곽으로 더욱발전하야갈수록 륙고잇든 토지의개척(開拓)이늘어가고잇다

어재최근십삼변동안의 함남도경지면적통계를보면 더욱 그럼저한데놀나지안홀수업다

소화십년도말의 경지면적은답(畓)륙만오백칠십정구반 전(田)이 삼십오만 일천이백삼십오정칠반합계 사십일만일천 팔백륙정보륙반인데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십삼년전인 대정십이년도말의 면적 답 사만삼천이백팔십칠정보일반 전(田)삼십일만일천팔백륙십삼정보반 합계삼십오만오천일백사십구정보반에 비교하면 오만륙천륙백오십팔정보반의 대격증으로서 답(畓)만 일만칠천이백팔십삼정보팔반의 비약적격증이다 그리고 이러케발전되야가며 개척됨에따라서 자작면적(自作面積)이 축년감소되고 그대신소작면적(小作面積)이 변년늘어가고잇스니 대정십이년도말현재의 자작면적은 이십칠만오천사십정보이반인대 이것을 소화십변도말현재의 십칠만일백칠십삼정보에 비하면 십만사천팔백륙십칠정보이반의 대격감을 보이며 소화십변도말현재의 소작면적은 십삼만이천사백 륙십사정보인대 이것을 대정십이년도말의 팔만팔십칠정보사반에비하면 실로오만이천삼백칠십륙정보반의대격증을보이고잇다고한다

甕津人士들의
水害民救濟熱

【甕津】 황해도옹진지방의 인사들은 남조선수해동포를 위하야 그동안 의복과금전으로 수삼차나 본사옹진지국을 통하야 보냇거니와 넘치는동포애는 끗칠줄을모르고 상금까지 답지하고잇다 마산교회대표 곽성실(郭誠實)백련옥(白蓮煜) 송정의숙(松亭義塾)대표 윤건홍(尹建鴻)씨 귀게학원(龜溪學院)대표 경태모(景泰模) 단천금주회(丹川禁酒會)대표 김영섭(金榮涉)씨 등이 본사옹진지국을 차자와서 다음의 금전을 내놓면서 약소하나마 남조선수해동포에게보내달라고 부탁하고갓다

馬山耶蘇教會十四圓十八錢
錢堂里教會一圓
馬山幼年主日學校一圓二十一錢
松亭義塾五圓
龜溪學院三圓八十六錢
丹川禁酒會三圓
計二十八圓二十五錢

全南北兩道內의
免稅額十五萬圓
兩道에荒地面積만四萬餘町步
監督局第一次調査

【光州】 금년농번기에 남조선일대를 습내한살인적 폭풍우의피해와 각종의충해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막대하다함은 루보하얏거니와 추수기가 당하여도손을댈수가업는참상을보고

호남의 세무를 관활하는 광주세무감독국에서는 관내각세무서를 동하야 피해지실지조사를 하얏는대 십오일현재로 제일차에 나타난 피해답(畓)이 이만오천오백삼십사정보이며 면세액이 십오만구백이십삼원이다

최초의 예상보다 약오만여원이 증가하엿다는바 아즉도 조사가 완전이 끗이나지안헛슴으로 추후다소 증가될모양이라하며 현재조사에 나타난것을전라남북량도별로보면 다음과갓다

▲全北荒地 一二、九〇九町步
▲同免稅額 一一、三四六圓
▲全南荒地 一、六八六町步
▲同免稅額 九、八六五圓
全北收穫皆無地
▲水害 二、七〇七町步
▲免稅額 一六、五二五圓
▲病害 一〇、五一四町步
▲免稅額 六一、七七九圓
全南收穫皆無地
▲水害 五、七六二町步
▲稅額 三八、〇七九圓
▲病害 一、九五六町步
▲稅額 一三、三一九圓
▲荒地累計 四、五九五町步
▲稅額同 二一、二一一圓
▲收穫皆無累計 一〇、九三九町步
▲同稅額同 一二九、〇七二圓
▲總計罹災地 二五、五三四町步
同免稅額 一五〇、九二三圓

南浦府區域擴張
明年度中으로實現性濃厚
一躍八倍의南浦建設

【鎭南浦】 진남포부의 다변현안인 부역확장안(府域擴張案)은 최근 점점구체적으로되여오는 진남포 부역확장 계획되여 명년도에는 실현하게 획을 세운모양이라는데 확장계획의 요안은 서면으로 삼화천(三和川)을 경계로 하고 동면은 서천(西川)을 경계로 하야 봉오문산리(文山里)로부터 삼화천에 향하여 직선으로될모양이라는데 현재진남포부면적에 약팔배가 되리라고한다 이안이실현되는때는 문자그대로 약진도시 대진남포가될것이라는바 부당국에서는 최근성안을지여 관계군면당국과 의견을 교환하는등 부역대확장의 예비교섭을행하라라고한다 금번부역대확장계획은 평안철도부설과 가티가못그대되는바라고한다

民有林火田까지
六萬町步를整理
廢耕을要하는것만萬六千町步
咸南道의火田整理案

【咸興】 함남도 림무계에서는 수년래 도내국유림(國有林)내의 화전(火田)을정리하야 화전민의정착(定着)에 주력하고잇든바 금후부터는국유림야에만 끗치지안코 민유림야(民有林野)내의 화전(火田)도 정리(整理)하기로되야 관계각군에 실상(實狀)의조사를명한바잇섯다

요즈음에 이르러서 각군으로부터 그보고가모엿는대 그를집계한것을보면 구월말현재 도내에잇는 민유림야 화전총면적은 륙만륙천구백이십구정보로서 그중 정리(整理)를요하는 면적이 삼만오천오백이십삼정보 전연폐경(廢耕)하여야할 면적이 일만륙천일백구십이정보 합계 오만일천칠백십오정보의 광면적에 달한다 그리하야 이것을 실시함에따라서 거긔에살고잇는 근이만여명의 화전민(火田民)들을생활안전의길로 정착(定着)시킬터이라고하는대 그결과가 자못긔대되고잇다

朝鮮人協和會
營口分會創立

【營口】 지난이십오일오후일곱시에 자방유지백여명이 조선인회관에 회합하야 협화회분회준비회(協和會分會準備會)를 성대하개최하고 림시회장으로 김창환(金昌煥)씨가 선거되후 경과보고와 회즉결정이잇섯는데 역원을선정한후 결석자은 오는이십오일오후한시에 본회관에서 거행하기로하엿다는데 선거된 역원의씨명은 아래와갓다고한다

協和會分會長崔保卿 同副會長梁周鉉 ▲評議員李丈善 文應河 金順福 崔錫弘 韓岩回 金能千 鄭機錫 玄 健 黃鍾賢 李祥來 ▲常務員 金昌煥 崔連權 白基澈 朴永煥 朴炳昌 金相俊 金喆熙 ▲顧問 劉龍起 洪一河 金大運 李春源

魔의갈대고개에서
又復行人을轢殺
一般은鐵道當局非難

【金泉】 이십일일오전십시오십분 북행렬차가 김천군감천면지좌동(金泉郡甘川面智佐洞)갈대고개를 지날때에 마침자전차로 철도를 횡단하든 원적을 성주군룡암면죽전동(星州郡龍岩面竹田洞)에든 정해윤(丁海潤)(三七)이 충돌되여 현장에서 즉사하엿는데 정해윤은 김천읍 이치화(李致和)상점에왓다가 자긔집에가는 도중에 그리되엿다하며 가족구인은 오직정해윤일신의 활동으로 생활하는터이엇스므로 유족들의 정경이 처참하다 전긔충돌된장소는 매년과차와 충돌되여 인명을빼는곳으로 금년에도 세번재살해를 이르켯스므로일반은 사고방지시설이업다고비난이놉다고한다

木浦

全朝鮮男女名唱大會

▲時日 十月二十三日부터一週日間
▲場所 木浦驛前假設劇場
▲出演者 京城、大邱、全州、群山、光州、木浦等一流名唱網羅
◇主催 朝鮮日報木浦支局、湖南評論社

新義州

延專巡廻音樂大會

▲時日 十月廿九日午後七時半
▲場所 府內新鮮座
◇主催 延專巡廻音樂部
◇後援 朝鮮日報新義州支局

住民熱誠으로
翰洞學院新築

【咸興】 함남영흥군진평면한동리(鎭坪面翰洞里)에 소재한 한동학원(翰洞學院)은 옛 서당을 래왕하야 부근동산아동을 교양하야오든중 해마다늘어가는 학령아동의수는 옛 서당으로는 도저히 수용할수업는관게상 동인들은 이삼년전부터 숙제로삼아오다가 지난상엽초순경에 학원신축긔성회(學院新築期成會)를조직하고 리유재산과 그외유력자의긔부금을합하야 일천이백여원으로 [illegible]에착수하야 칠게월이지난 금시원만공성에 준공을 보리라는바 이는 리민일반(一般)의 결정체이며 그중에도 긔성회책임자 김량윤(金良允) 조병수(趙炳洙)정유운(鄭裕云)김수범(金壽範) 정용서(鄭容瑞)제씨의 노력이막대하다고한다

災地高敞全郡에
旱害根絶對策
浚渫工事近近竣工

【高敞】 전북고창은 건답이 만흔 한해지로 매년벼를 심지못하고겨우 몃개소 방죽물를리용케되는터임으로 본도와 본군에서는 약이년전부터 준설공사의 준비로 공비조성을 몽리답주에게 배당케하여 구만삼천원중 도보조반액을 합하여 근근금춘부터 긔공하야 오개소는 봄에준공하고 남어지팔십사개소는 금번전부준공하기로 된바 금후는 약간의 한발이 잇드라도 몽리답에 한하야는 특별한 효과가 잇게되엿다한다

定州署管內에
阿片密輸激增

【定州】 정주서관내에는 근일안동현방면으로부터 아편을밀수하여오는자가 만흠으로 극력으로 방지하나 요지음엔주입내로 또밀수사건이 칠팔건에 달하므로 정주서에서는 금후엄중히 처벌할방침이라한다

地方人

▲湯村辰二郎氏(京畿道知事) 轉任人事次 本報咸興支局來訪
▲池內勝太郎氏(前鎭南浦警察署長) 淸津警察署長榮轉人事次本報鎭南浦支局來訪
▲金在烈氏(醴泉警察署司法主任)新任人事次本報醴泉支局來訪
▲李壽晃氏(谷城面長)新任人事次本社順川支局來訪
▲李明甲氏(伽倻面長)同上
▲今木繁六氏(開城警察署警務主任)新任人事次 本報開城支局來訪
▲古賀新作氏(龍仁警察署長)新任人事次本報龍仁支局來訪
▲尹性炳氏(龍仁警察署司法主任) 同 上
▲橫山勇氏(京畿道警察部轉開城署勤務) 新任人事次本報開城支局來訪

北靑邑、新浦間
汽動車增運運動
兩地代表關係處에陳情

【元山】 변성산고 오백여원을돌파하야 수산의왕좌를 자랑하는 신포항(新浦港)과 군청(郡廳)은 지리상또는 상업상으로 우월한 지보를차지한 북청읍(北靑邑)과는 고래로 련락과 취인을 긴밀히해오기때문에 피아의 왕래는날로 자저저서 교통량은 해마다 격증하는현세이나 지금의 교통긔관으로서는 철도리용밧게 업는데 이오전도 하로에상하하는객차 네번밧게업는 한심한처지로서 시간관계로 때로는리용못하는수가 만흐니 『국철』이다야『개혁단행할이때에 다시 신포와북청간에 긔동차(汽動車)한대를더증발하야 이교통량의폭주를완화해달라고 전긔량지의대표 진정원으로서 북청상공회대표평창이삼(平倉二三)씨외일인과 신포번영회대표 리정섭(李鼎燮)씨외일인 한네사람은 지난이십일 성진철도사무소를거처 정원(前原)에는 원산철도사무소에 [illegible] 소장을 방문하고 각각진정한바 잇섯다 그리하야 그들은 다시 철도국 길전(吉田)국장을 방문하고 최후의 진정을 하기위하야 곳경성으로 출발하엿다

愛慾의彼岸
【132】
李光洙 作
金康穆 畵

로장은 바위에 걸터안저 단주를 걸팔을 들어서 합장하고 나무、나무、나무하고 몃번 중얼중얼한다。

『그런데 어느 시님이 돌아가섯서요?』

하고 안내하는 사람은 떼옷궁금하여엇다。

『어느 시님이아니라 구경 왓던 손님이라네』

『구경왓던 손님?』

하고 안내인은 깜짝 놀라면서

『구경왓던 손님이 왜 죽어요』

한다。

『구경 왓던 손님은 못 죽나 산 사람은 다 죽는것이지。』

『그러기로 하필 영원암에 와서 왜죽느냐 말이오?』

『다 무슨 인연이지。죽을 곳을 차자서 영원암까지 들어온것이어든。말씨는 서울 말인데 살기는 길림 산다고。아주 유식하고 점잔흔 사람야』

하고 로장은 말에 신이 나는 모양이다。

『길림』이라는 말에 혜련은깜짝 놀랏다。『설마 강선생이』하면서 참아 뭇지는 못하고 중의 말에 귀를 기울린다。다른 사람들도 일변 무시무시하면서도 로승의 입을 주목하고 잇다。

로장은 말을 이어서。

『어저께 저녁때나 지나서 그 사람이 영원암에를 온단 말야 혼자서。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나서 생각해보니까、그 때에도 어째 낫색이 이상하단 말야。그래 저녁을 시켜먹고는날더러 어디 방이 업느냐고 대단히 조용해서 마음에드니 좀 묵어가고십다고 그러단말야。그래 모퉁이 끝방을 주엇지。그리고는 밤이 이슥하도록 나허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나는 잠이 들지를 안헛겟나?아침에 늣도록 아니 일어나는모양이길래 아마 몸이 곤해서그러려니 하고 신지무의하고 잇섯단말야。그래도 어째 좀 마음이 켕기길래、내가 문압헤 가서 일어나라고 불러보앗지。대답이 업단말야。그 원이상하다하고、문을 열어보앗터니 아랫목에 반드시 들어누엇는데 벌서 죽어엇데그려。얼굴빛이 벌파래단 말야。그래 들어가 만저보니까 차듸차고 숨이 업지안캣나。죽은 사람이엇어 잇슬리가 잇나。어쩌자 이 양반이 죽엇군 하고 눈물길가리니 벌서 [illegible]더서 세상 눈물감아야지。대관절 어떠케 죽엇슬까하고 방안을 들어보니까 펀지 한장이 잇단말야」

하고 조끼 주머니에서 떡펑 봉투에든 편지를 꺼내서 흔들어보이고는 다시 무슨 소중한것이나 되는드시 다시 집어너흐며、

『원 세상에 독한 사람도 잇단 말일세。그 사람이 어떠케 죽엇는고 하니 가만히 드러누어서 숨을 안 쉬어서 죽엇단말이야。대체 독한 사람 아닌가。목을매어 죽는 사람도 거진 죽게되면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친다는데 숨을 안 쉬어서 죽다니、펀지 무슨 도둑 닥근 사람야。성인은 생사를 우리네가 이웃집와다가듯 하드시 한다거든 이사람은 펀지 성인인가바。그리고 그 죽은 리유가 무엇인고 하니 제가 살아잇스면 어느 한 사람이 잘못 된 길로 끌리겟기로 한 사람을 잘못 된 길로 끄는것보다는 제가 이세상을 떠나버리는것이 올타고、그래서 죽는단 말야』

하는것을 듯고 안내군은、

『벨 싱거운 여석도 만소』

하고 웃는다。

그러나 혜련의 얼굴은『한 사람』이란 말에 더욱 질린다。그러치만 설마 하고 혜련은 로장의 다음 말을 기다렷다。

『응、자네가 모르는 말이지』

하고 로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 중생을 그르치는 죄가 백겁을 가도 소멸하지 아니하는것이어든。금생의 이 몸을을 던저서 한중생을 건진다면 게서더큰공덕은 업는것이야。우리네 범부야 천만생을 돌고나기로 어느 중생하나 건저보나? 공연히번뇌속에서나고 죽고 나고죽고 할뿐이지。그러니까 이거하나로 보아도 이사람은 갸륵한 사람이란말야。그어느 한 사람이란게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자마는 말일세』

하고는 그는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모양으로 입울오물오물하며 염주를 매번세이다가、영원암쪽을 바라보면서、

『이거、원、어째、아직도 와와。젊은것들 두더서 시체 하나가 무거워서 이러케 꿈지럭거린담 옹、좃놈들을』

하고 일어선다。

冬物品備
毛絲 メリヤス オーバ セーター 手袋・沓下
現金問屋 (相談大歡迎)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四丁目 振替大阪九六三六

大工道具・理髮器具・金物一般
鋸製造卸 大工道具 專門製造直賣・信用本位日本一
大阪市 武村製作所
電話東一七八五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

現代的趣味에最合하고實行이極히良好한
ステッキ・パイプ 卸商
合名會社 井村友三郎商店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丁目
電話船場四一〇二・振替大阪三一八九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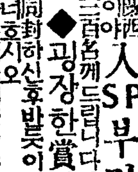
技工의精巧와品質의優秀에依하야信用이敦厚합니다
執務用에 實務算盤
實用的에 萬古算盤 日之丸算盤
經濟的에 滿洲號算盤 愛國號算盤
懷中用에 富士號算盤 サクラ算盤
小學生用에 敷島算盤 アサヒ算盤
算盤手入의御用에 算盤手入器
大阪南久寶寺町二 合名會社 [illegible]算盤店

광장한人氣의
映畫祭記念
大景品付 자미난 아라내기
(課題)

		2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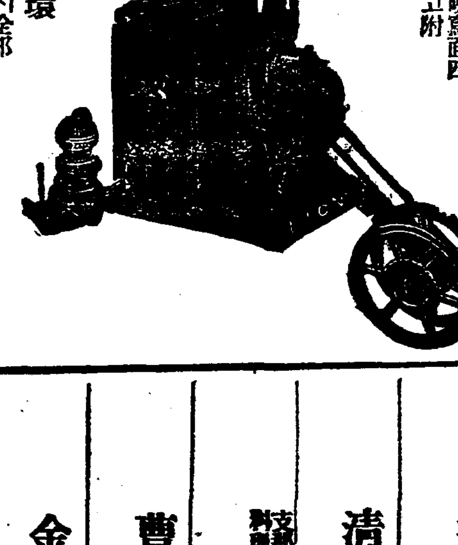
(答案規定) 우의六個四角이비여잇는데그中에1346679의六字를넣어서가로나세로나모로든지十五가되게하여주시오
▼答案資格 朝鮮日報讀者에限함
▼締切期日 本日부터十五日以內
▼答案의採用 [illegible]

●正解者全部에는左記各種大景品을進呈함
一、解答은切手十八錢同封하시고姓名住所를明記하시오
一、正解者多數인境遇는抽籤法에依하야三百名을選定하야굉장한賞品을贈呈함
一、當選者에게는締切後發表와同時에通知함
◆굉장한賞品의贈呈規定
映畫祭의記念으로서스타ー가조화하는高級寶石入SP부라치나指環
入選三百名께드립니다



送處 東京九段通り三丁目二 東京映畫協會・宣傳係

ライオン號
新型壹號映寫機
本機는大型總金屬製로優良렌즈使用電球一〇〇燭까지映寫面四尺자못鮮明하게映寫되고附屬完全長尺필림도輕快하게使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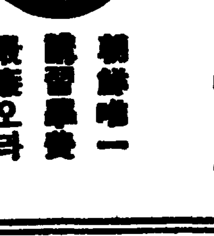
三百名께贈呈하는 活動寫眞機 壹台式贈呈
副賞 寶石入SP부라치나指環 壹個式
添呈 ●當選에빠진分全部 日本有名女優푸로마이드二枚式贈呈

醫師試驗準備書
漢鮮文醫學講義通信教授 二錢切手添付 內容見本進呈
本院 京城府新設町二三九

◎公州普校同窓生께告함
母校創立三十週年紀念式及慰靈祭를本月二十四日午前九時母校講堂에서擧하니多數參席을務望함
公州公普校同窓會長 白

고추가루 千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送呈하겟슴니다

新職業 醫療師養成
時代的電氣 ◎醫療學全科 責任傳授
現代科學이낳은世界的大發明의電氣醫學의全科를郵便으로責任傳授함
朝鮮唯一 電醫學會 最良오라



今回는特히分院長으로서 [illegible]
卒業生은滿洲朝鮮의實力과分院長의資格을與함
特別臨時講習
內容規定書無代呈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祝市內電話開通
定州郡馬山面淸亭市 淸亭郵便所 所長 大塚奧次郎
淸亭公立普通學校 電話六番
淸亭金融組合 電話五番
淸亭警察官駐在所 電話四番
至誠醫院 電話一七番
馬山面事務所 電話一四番
定州納淸亭鍮器株式會社 電話九二番
淸元勞働組合 電話一六番
淸亭燒酒釀造所 電話一〇番
淸亭殖產組合 電話一一番
雙興園 電話一五番
曹永得商店 電話一九番
金連玉商店 電話一三番
第一殖產組合 電話一二番
淸亭司法書士事務所 電話一八番
元下公立普通學校 電話七番
淸亭冷麵屋

朝鮮産業經濟調査會
中小工業、家庭工業 奬勵發達을促進
廿四日總會에서答申

▲第三日午後

第一分科會

産業調査會第一分科會(農林水産)는 廿三日午後一時부터再開, 午前에繼續하야 農業、林業、水産、緬羊奬勵等이中心이되바 源原猶次郎氏도 出席하야 各委員으로부터

一、緬羊十萬頭計畫의促進
一、緬羊奬勵는 地方的으로 濃厚한指導가必要
一、羊肉의處理方法
一、漁市場令의制定
一、漁業資源의調査徹底
一、漁船의改良普及
一、漁船保險制度의考究
一、漁港施設의改善整備
一、農畜産業의化學的、工業的利用等 各論的意見이잇고 最後로 大綱的意見으로서 原始産業과 工業의倂進이 將來의重大問題임으로 報告書作成에當하야서는 此點을留意하고 諮問答申은 官民協力實行을 期할것 이라는 希望이잇서 質問과討論을終了하고 二十三日午前中에 報告書를 作成키로되고 午後五時散會하얏다

第二分科會

産調第二分科會(資源工業)은 二十三日 午後一時再開하야 午前에 繼續하야 一般的意見의 開陳에 入하야 右委員으로부터

一、液體燃料에 對하야서는 다만 補助金交附와 가튼姑息的手段에 依치말고 關稅引上或은 消費稅의 設定等에 依한積極的方法을 다할것
一、液體燃料를 節約키爲하야 木炭瓦斯自動車、電氣自動車의普及奬勵
一、朝鮮에 豊富한 石灰岩代用 液體燃料의 使用奬勵
一、小規模의 自動車와 飛行機組立修理의 發達助成
一、資金의 流通損失補償制度의 運用에 잇서서는 日本內地의 實際를 硏究할것
一、勞資關係의 基本調査를 促進等의 意見이 잇섯는데 이로써 討論을 終了하고 二十三日午前中에 答申案報告書作成에着手키로하고 同四時散會하얏다

▲第四日午前

朝鮮産業經濟調査會의 第四日은 二十三日부터 總督府에서 開催되여 前日에 繼續하야 第一、第二、第三分科會는 各委員間에 若干의 意見開陳가잇고 大體로 答申事項을 決定하게되엿다 그리하여 第一部는 字句修正等이 잇슨다음 二十四日에 答申案을 作成하야 總會에 提出하게 되리라고 第四分科會(實業敎育其他一般事項)만은 二十四日午前부터 비로소 開催되엿다 各分科會의 經過에 對하야 發表는 다음과 갓다

第一分科會

午前九時부터 開會 十一時까지에 分科會를 終了하엿는데 이래와 가튼 委員의 意見開陳가 잇슨다음 答申事項에 對한 大體의 決定을보앗다

一、農業關係
▲養蠶에 對해서는 副業中에 가장 主要한者로 그 奬勵에 더욱 考慮하기 바란다。▲果樹 蔬菜의 改良 增殖에도 考慮할것

二、林業關係
▲砂防造林의 施設에도 主力할것

三、水産關係
▲鮮魚外에 冷凍魚에 對해서도 充分한 硏究를하야 奬勵케할것 ▲水産品을 食料品化할뿐外라 飼料化하에도 考究할것 ▲海洋漁業에만 아니고 河川、湖沼의 水産奬勵에도 特히 努力할것

第二分科會

▲朝鮮에 잇서서의 家庭工業 中小工業은 今後에도 企待할바 잇슴으로 其奬勵에는 日本內地의 事情에 順應하야 發達을 促進케할것 ▲國防工業促進에 留意할것

第三分科會

九時부터 開하고 答申事項을 決定한다음 答申案에 各委員의 總意에 依한 希望意見으로서 追加하고 十一時二十分終了

第四分科會

産業調査會第四分科會(産業敎育其他)는 午後一時부터 總督府 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얏는데 大要左와 如한 要項에 基하야 各委員으로부터 質問、意見開陳과 討議를 終了하엿다

一、産業敎育
▲朝鮮은 至急人的資源의 開發을 要할것이라고 前提하고 上示로써 産業敎育의 [illegible] ▲初等普通敎育의 改善普及 ▲實業敎育의 普及及擴充

二、一般事項
▲産業에 關한 試驗調査機關의 擴充 ▲各試驗調査機關의 連絡統制 ▲發明의 奬勵機關設置 等으로 産業의 向上은 먼저民度向上이 先決問題이라고 論議되엿 後 報告書를 作成하고 二十日總會에 附議키로 되엿다 한다

今日財界(廿三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京城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單位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産調答申注目
農業과林業도 工業原料로提供
◇…高度의資本化促進等을豫想
農村土臺의産業轉換?

産業經濟一般에 急激한變化로 「躍進朝鮮」의 名聲이 高調되여 朝鮮開發의 名目下에 日本內地資本家의投資活動이 今年活潑하여가고 잇는 이때에 今後朝鮮産業經濟政策의 重要眼目을 決定할 示唆가될 朝鮮産業經濟調査會는 日本內地 滿洲 朝鮮各界의名士 學者와 特히 大産業家를 多數網羅하야 開催된지 四日에 分科會도 大略끗나고 二十四日의 總會의 答申案決定으로 閉幕될터인데 同會의 結果는 果然 어데케 落着될것인가 하는것은 極히 注目되는中 當局의 發表에 依한 會議經過로만 보아도 大體에 잇서서 今後朝鮮産業에는 大資本의 活動을 爲한 諸般施設이 各委員으로부터 要求되고잇는것은 當初부터 豫想되엿든바라 해도 一層顯著한바잇슴이 더욱注目되는바이다 그中에서도 顯著한例로는 農業、林業에 잇서서도 工業原料提供을 爲한 的意見이 만흔것이며 資源開發、工業等에도 高度의資本化에 留意되고 잇는것이며 其他一般的으로 主로滿洲와의連繫가 適則的見解로되여 잇는 點等이다 이런것은 朝鮮産業經濟의發展上 現實事情에서 論議된 바이라고도 할것이나 이러한論議의 論調下에 從來成長되여온 農村을 土臺로한 朝鮮産業이라는것은 어떤地位에서 處理될것인가 또 어떤變化를 招來할것인가가 論議의餘地가 잇슬것이다 果然 二十四日의 總會에서 어떤 答申案을 볼것인가 注目되는바이다

商工省의朝滿 炭田調査班

商工省으로부터 朝鮮滿洲의石炭資源을 調査키爲하야 朝鮮에 온 松本鑛業課長 田子島技師는 二十二日 總督府에서 石田鑛山課長으로부터 朝鮮內의石炭、鑛鑛等에對하야 事情을聽取하고二十三日 釜二浦日鐵의 視察에赴하얏는데 繼續하야 滿洲視察에 向하리라한다

棉花最低價格 保障은困難
地方的組合制採用?

産業調査會 第一分科 農業部門의 討議에 際하야 各委員으로부터 工業原料인 農林産物의 增産助成에 對하야 積極的要望이 提唱되엿고 就中棉花增産 計畫의 强化는 國策的見地로부터 重要性을 痛感하야 熱心한討議가 잇섯다 右計畫에 伴한 棉花의 最低價格 保障이 强調되어 總督府當局에서도 이 對策에 對하야 考究키로 되엿는데 最低價格保障制度에 對하야서는 大體棉花價格이 世界的으로 上下하는것으로 다만 朝鮮內의 制度만으로는 如何히 할수업고 從하야 이에代할 棉花栽培地에 地方的組合制度를設立하야 相互의 積立金으로써 棉花價格變動에 依한 打擊을 防止케하고 그것의 具體化를 할意向이라한다

繩叺統制에 農會利用
産調에서强調

各道의 繩叺統制는 道別의 營利會社에 依하야 配給統制가 行하는터인데 이에 對하야 産業調査會에서는 痛烈한 批判이 잇서 營利會社統制를 脫却하고 農會等과가튼 機關을 利用하자는 所見이 開陳되엇다한다

商銀三千浦支店開業

商業銀行三千浦支店은 二十三日 堀事務頭席下에 盛大히開業하얏는데 初代支店長은如左하다
▲統營支店支配人兼務▲牧島出張所主任 堀直夫 命三千浦支店支配人代理

金組債券發行

朝鮮簡保資金의 金融取入으로 春金融債券의 引受發行이 新方

"企業者基準"
需要者立場不顧한것
朝鮮電力統制論駁

産業調査會 第二分科會電力資源에 關한 討議는 幹事今井遞信局電氣課長으로부터 朝鮮內의 發送電統制의 現狀을 詳細說明하고 이미 朝鮮의電氣事業은 統制가完成되어 目下問題가된 點 [illegible] 리고朝鮮의電力統制는 企業者를基準으로한것으로 需要者側의立場이 考慮되어잇지 안라고 一般燈用의擴張을 力說하얏는데 官林、津田各委員으로부터도 相當히深刻한論議가잇슨模樣으로 朝鮮電力資源에對하야 有力한指針을與한바잇섯다 電力國家管理法이 日本內地에서 施行되어도 朝鮮은 그必要를 認치안는 現狀이다 라는言를 說明하얏다 이에 對하야森廣藏氏는 南朝鮮地方의 電力資源의開發과 電力料의低減을 要望하고 電力의 需用에서 動力用으로는 하야 지금은 蒸氣時代이다 그

朝鮮製鍊二回拂込

朝鮮製鍊에서는 千二百株를 持

金價格昂騰?
鑛産稅新設로

今回의 增稅案에 依하면 從來無課稅이던 金銀鑛에도 鑛産稅를 新課키로 되엇는데 이鑛産稅의 新設은 當然世界的으로보아 低率이日本의 金價格을 그만큼 釣上하는結果를 招來할것으로 豫想되어 最近産金株가 昂騰된것은 金買上價格引上을 豫想하고 此邊의 消息을暗示하는것이라한다

産統法施行問題
日本內地官邊委員强硬意見
◇…今後形勢逆睹難

産業調査會는 二十四日總會로써 閉幕하고 産業朝鮮의 重大針路를 答申키로되엿는데 今回의會議를 通하야 가장緊張裡에 白熱的論戰의 展開가된 事項은 産統法의 外地施行問題로 今回會議의 工業部門에잇서 重要産業統制法이 形勢를 推하야 總督府의態度를 闡明코 相當한 紛糾를 兼究할것으로보인다 即同問題에 關하야 朝鮮側을 代表하야 穗積殖産局長 林商工委員은 統制法의 朝鮮에의 施行을 延期코저하는 産業을 擁護하는 立場에서 考慮할것이다 라고 主張하얏는데 對하야 日本內地側의 松井(資源局長)辻(商工省第一部長)兩委員은 統制法은 이미 議會에서 決定되엇고 施行權限의 主體를 商工省으로서 「政府」에 修正한것은 明白히 朝鮮에도 이것을 及할것을 意味한것으로 朝鮮은 日本內地와 步調를 合할것이다 라고 反駁하고 更히 滿洲側某委員은 統制法은 日滿一體의見地에 立하야 特히 北中의 經濟情勢도 包含하야 國策的見地로서 除外하는 支障이 잇슬念慮가 잇고 朝鮮만 除外함은 最近朝鮮의 産業은 經濟圈에서 別個로 分離하는 傾向이 보인다 라고 極言하야 日本內地側에 意見을表하고 大橋委員으로부터도 外地施行을 支障이잇슴을 念慮가 잇고 [illegible] 同樣統制法施行이 不得已한 事情을 力說하얏다하며 此間穗積殖産局長은 極力闡明에 努力하야 朝鮮은 決코 議會의 法律에 反하는 意思는 업고다만 朝鮮特殊事情도 充分히 考慮하야달라고말하야 세멘트業에限하야이것을施行할 旨를言明하얏는데 結局分科會의 解決은 朝鮮內各般의 事情과 地及滿洲의 工業과의 關係를 考慮하야 適當한 施策을講究함이 라고하야 法令의 實施에 對하야서는 時期方法을 愼重考慮할 要附加하기로 審議를 進하엿다 會議의 經過로 推하야 日本內地側當局者인 委員이 强硬意見을 吐露하얏으니 目下 總督府가 拓務、商工兩省과 法制局間에서 進行하는中인 具體的折衝에 잇서도 前途暗雲이 잇고 總督府도 一定業種에 限하기로하야 세멘트業만에 限定코저하는 意向에對하야 日本內地側이 果然 滿足할것인지 今後의 形勢는 자못 注目된다 한다

經濟界消息

○朝鮮運送五分=朝鮮運送에서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上期決算重役會를 開催하고 決算問題를附議할터인데 株主配當은年五分据置로 決定하리라고
○全國株式取引員大會=來二十四五兩日 博多에서 全國取引員大會가 開催되는데 朝鮮取引所證券部는 正式入會치안켓지만 博多의 招請이잇서 新田取引員委員長 山本、大原兩委員이 二十四日午後三時發 地에 向하야 大會에 出席할 豫定이라하며 大會議案은 取引所改善策 其他當面問題이라고
○津田信吾氏에게 뭇는會=産業調査會에出席키爲하야 入京中인 津田鐘紡社長을 招請하야朴榮詰氏의 斡旋으로 二十三日午後四時부터 朝鮮호텔에서在京少壯實業家約二十數名이 「뭇는會」를開催한다고
○京春鐵道解氷後着工=京春鐵道豫定線의 金谷、加平間은三回에亘한 實測으로 大體通過點이 決定되엇고 其後 加平、春川間의 實測을進하는一方京城金谷間의 測量도着手하얏는데 全線의 實測은 今年中에終了할것으로 結局結氷期中에 工事着手의 準備를進하고 解氷을待하야 入札에附하리라고
○金融債券發行額三百萬圓
一、利率 四分一厘
一、金融債券發行額三百萬圓 ... 途가되엇는데 그本格的債券引受로서 十一月中旬 如左히 發行키로 內定하얏다
一、利率 四分一厘
그期限은 未定이나 盡皆長期일터이라한다

經濟寸鐵

○國策上大增産이必要한點과農家經濟에重大한 地位를占한點을 再考三顧할일
○電氣事業統制가 完成되엇다는 電氣課長자랑에
○企業者基準이오需要者側立場을考慮치안흔統制라고原上一針
○遞信當局의코가납작
○重要産業統制法朝鮮施行問題로一波瀾
○日本內地官邊委員은 强硬히 適用을主張
○適用을 「세멘트」에限定한總督府側 절점멸판?
棉花最低價格保償은 産調委員會에서高唱되엇지만 어려우리라나

實物前場取引

取引高二〇〇枚
▲昭和人絹 [illegible]▲東邦人造纖維 [illegible]▲全羅鑛業新 [illegible]▲ラサ工業新 [illegible]▲浦賀第二新 [illegible]▲日本火藥新 [illegible]▲大連機械新 [illegible]▲關東重工業 [illegible]▲人造羊毛 [illegible]

世界經濟의 現狀

(관련) 에 關心을 恒常하는 가지는나머지 世界經濟의現狀에 無關心하는 狀態이나 만약法貨切下後 新洲各國의景氣가 一段上昇된 事實과 米國景氣의 異常한好調를 考慮하다면 到底히 無關心할수업는現狀이니 株界는勿論 纖維 鐵道界炭高等 自動車生産이나 綿業指數等도 歐米를通하야 概히 良好하고 銅、小麥、棉花等의 商品의 消費高는 激增하야 物價指數도 漸騰하고잇서서 五六年동안에 못보는 好景氣를 보이고잇따。이는 世界的不景氣의 出發點이되엿든 現象은 各國에 인플레政策과 强大한軍備擴張에 依하는것이니 만큼 今後의 發展性도 期待難한것이나 이에對하야 새로운 注意와 關心을가질必要가 잇슬가 한다

株式
低迷裡에 不勢

商況 [廿三日]

前場保合 今前場에는 東新百三十五圓三十錢、日産八十四圓五十錢、鐘新百七十七圓四十錢에 寄付하엿스나 商狀不透明으로 賣方이 傍觀裡에 推移하야 賣買는 閑散한中에 保合을 持續하야 結局東新 百三十五圓三十錢 日産八十四圓五十錢의 寄引同價로各各大引하엿다
後場不勢 後場은 東新百三十四圓七十錢 日産八十三圓七十錢 鐘新百七十六圓五十錢等의 低價를보이고 不勢裡에 大引하엿다

新動機待商狀

近日의 株式市場은 一言而蔽之하면 形勢觀望裡에 傍觀의態度이다 卽 實人氣가되어 押目은 내엇스나 그以上 追擊할材料도 업스므로 新規實物도 볼수업고 買方이 傍觀하고 하거니와 賣方도 局面에서 積極買進할수업는 이局面에서 積極買進할 행政機構問題等 細心한 注意가 要하는 日中問題、豫算編成도 그러하고 日中問題、豫算編成 잇서서 市勢는 維伸維押으로東新百三十五圓臺、日産八十四圓臺를 支持되어 保合이면서도 株에따라서는 反撥氣味를 보이는것도 업는바는 아니나 如何튼 지금은 新動機를 期待하고잇는 狀態에 不過하다。

世界的인플레

요새 市場人들은 當面한政治問題는 ……

東京國債市況

米貨債는 謀略不安이 再次擡頭하야 嫌氣의 處分賣가 續出하고 特히西側의 賣物로 六分半一圓二十錢 五分半一圓十錢低落되고 이에따라 內國債도 三分半五錢 引緩하엿스며 其他는 一齊히 不勢이엇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不伸▲一圓四分 一〇〇、四五▲二圓四分 一〇〇、八五▲佛貨 一九六、一〇
▲甲五分利 一〇〇、四五▲第三

六感

(株)……二二六事件以後 市場人의 時局에對한 神經이너무 도銳敏하야 時局念慮에 投機株에의投資에는 極히愼重▲그러므로 依然産金株가는 探算株에만買氣가集中▲東新은 取引所稅決定까지는 不賣不買가繼續되리라說이 不少▲逆日步에도 움직못하는것을보면 氣迷도相當한 深度인것을可知▲그러나 世界的景氣上昇時代란것을 忘却해서는안될일……
(米)……阪地情報는 全產聯賣却說이 데마이엇슴을報道▲昨今兩日의 阪地期近物의回復步調를보면 이것이事實일것을 明確히證明▲그러나 材料가업는限을作米를 올리면 얼마나올리라?▲民間 겨누고잇는 監限의 實物이 潛在한限 本格的回復은 難望▲受米를增倍한當限의實蹟은 月末穀의白熱化를豫告……

拂下時期는?

政府에서 決定한 拂下米二百萬石中 前者二回에 拂下된것은 不過四十餘萬石에 不過하는不良한 成績이엇는데 이殘存한政府古米의 處分을 어느 時期에할것인가하는데 對하야 市場人은 一齊注目하고잇는데 一說에는 近間에 곳拂下할것이니 警戒할 必要가잇다고도하나 一說에는 米價一服後이므로 米價에 惡影響을 興하지안키 爲하야 十一月 新穀期에 들어가 行할것이라는說도잇서서 그時期가 매우 注目되고 또 單純한 拂下이냐 買上을 兼한 拂下이냐에 特히 注目된다고한다。

當限高나 伸惱

期米

前場當限高 高昨後場阪地二十八圓七十七錢과共히 二十六圓七十錢에 寄止한當地期米은今朝에入하야 阪地二十八圓八十一錢인 四十三錢高를하고 二十六圓七十三錢으로 寄寄하야 七八節九十六錢으로 八十九錢에止寄하얏으나 五六七節七十九錢으로七十七錢에 當限高나 伸惱 後場不動 後場은 二十六圓七十四錢이同價로 始寄하얏으나 七十四錢으로 最終七十四錢에 止寄하엿다

當限動向注目

全產聯의 賣拔說、田中貞의 新株說의 風說로 再昨日에 期近物을 中心으로 瓦落當限高市勢도 昨日來再次回復步調를보여今朝에는 阪地當中限이 擧에 高의 市勢에로 上伸하고先限도 再昨低價에 三十餘丁의 反撥을 보이게되엿는데 當地當限도亦是 限은 實方의 大體買物에 壓倒되여伸 惱狀態를 呈하고 잇섯다。 情報에 依하면 阪地市場은 當中物을 中心으로 大買物으로 期近物은 暴騰하고 先限은 亦 積極買進이에 追隨되어 上伸하게되는 도하 高價에는 指置實가 기다리고 잇스므로 本格的回復은 至難하야 高價를보인後에는 足뭇 低落하는等 伸惱狀態를 보이고 잇는것이라고한다 當限만은 買方이 受米를決心한以上 容易히 低落을 不許할터이므로 月末은 當限戰에 白熱的決戰을 보일것이라고 當限의動向을 興味로서 보고잇다

神戶港祭市場臨休

(神戶聯絡電話) 十一月七日神戶港祭當日神戶市場은 休會키로決定하고 三品取引所와 株式 期米의 市內金融機關도 臨時休業키로되엇다

五分 一〇〇、八八▲第一回四分 一〇一、三〇▲第二回四分 一〇一、一〇▲佛貨六分半 一九五、五〇▲四分 一〇〇、二〇▲英貨六分半 三六七、五〇▲滿洲公債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少强
期米高値을 受해 氣配二十錢高唱이 되엇스나 實買는 意外로 不振狀態이다 ●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二九、五〇

仁川强堅
年來運產과 農業關係로 產地의 買物이 全然업고 떼마침 定期高로 市場은 現物不足을 示하야 二十錢高氣配가 되엿다 ●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二一、〇〇

釜山頭重
期米 小强하음으나 人氣에는 큰 變化가업고 當用必需側의 應買가 敢見되는 程度로 市況은 頭重商狀을 定하고잇다 ●三等 二七、九〇 四等二七、六〇 一等白米二一、二八

大邱閑散
天候快晴이나 産地의 實物이엄서 場面은 賣物薄이고 人氣는 자못不振하야 市況은 極히 閑散裡에 保合이엇다 ●三等二七、一〇 四等二六、八〇 一等白米二一、七五

群山少堅
日本內地當用買物의 注文이잇는데다가 與地所持의 實遊人氣에 市況은 小堅하야 繼續으로 十錢高唱이엇다 ●三等二七、七〇 四等二七、四〇 一等白米二二、二〇 五等二八、二〇

木浦强含
清算當限高를들 겨人氣多少 回復된듯하나 實買는 依然積極味를缺하야 小口當用買物散見程度이다 ⑬新米 三等二八、五〇 四等二八、二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買方 [illegible]

金融 廿三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廿二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廿三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廿三日

◆京城綿糸布市況◆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醬油冲價◆ [illegible]
◆鋼鐵冲價◆ [illegible]
◆日米麥粉市況◆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株式 廿三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賣組◆ [illegible]
◆東定代引日歩◆ [illegible]

期米 廿三日

◆朝取期米賣買高◆ 取組高 中 [illegible] 先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期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況◆ (單位錢) [illegible]

商品 廿三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海外綿花◆ [illegible]
◆外國爲替◆ [illegible]

朝取取引員
アジア證券
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リ二ノ一 日生ビル

金益證券商店
京城 仁川 米 株

期米 株式 正米
御利用は 恒産取引店

移轉廣告
店舖新築中ノ處落成移轉仕り候 就テハ猶々御引立ノ程伏而奉願上候
新築店舖 京城府明治町一ノ三四
內海株式店
本店代表⑵二三二五番